

# 尙州 東學教堂 記錄物의 書誌學的 特徵과 價値\*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Materials Stored  
in Sangju Donghak Church

裴賢淑 (Pae, Hyon-Suk)\*\*

## ◁ 목 차 ▷

- |                     |                     |
|---------------------|---------------------|
| 1. 緒言               | 5. 東學教堂 記錄物의 特徵과 價値 |
| 2. 尙州 東學教堂의 成立      | 6. 結言               |
| 3. 東學教堂 書籍 刊行의 略史   | <참고문헌>              |
| 4. 東學教堂 傳存 書籍과 印刷用具 |                     |

## < 초 록 >

상주 동학교당의 교주 金周熙는 동학란의 우금치전투에서 일제에 대한 무력항쟁만이 능사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정신무장이 훨씬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일이라고 깨달았다. 김주희는 동학경전의 진리를 교인에게 가르침으로써 생각을 실행으로 옮겼다. 이로써 그의 가르침은 몇 세대 동안 후손에게 전승될 수 있었다.

김주희가 1915년 상주읍 은천면 우기리에 정착한 후, 상주동학은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1920년말에는 신도가 1,500명에 달하였다. 이로써 김주희는 30년간 일본 경찰과 쫓고 쫓기는 상황이 되었다. 이 기간 교주 김주희는 동학사상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이론과 실제에 있어 동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부교주 김낙세는 동학교당의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실제로 김낙세는 일제로부터 교당의 허가를 받아내었고, 교당 건물을 축조하였고, 동학경전과 가사를 간행하였으며, 교인을 교육하고 전교하는 모든 일을 관장하였다. 역할 상 교주 김주희는 창시자라고 할 수 있고, 부교주 김낙세는 교당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김낙세의 중요한 업적은 53년간 직접 일기를 쓴 것이다. 남아있는 17책의 일기는 53년의 일이 기록된 타임캡슐에 비유될 수 있다. 동학교당에서 집회도 하고, 의례도 행하고, 동학경전과 동학가사를 간행해 배포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 당국은 동학교당의 활동을 끊임없이 사찰하였고, 마침내 사건 통고도 없이 1936년 6월 집회를 금지시키고 인쇄소를 폐쇄시켰다. 이후 일제와 쫓고 쫓기는 상황이 시작되어 비밀리에 집회하고 예배를 보았으며, 비밀리에 경전과 가사를 인쇄하기에 이르렀다. 1943년 11월 일본 경찰이 상주경찰서로 교인을 체포하고, 산더미 같이 많은 서류와 서적과 상징이 되는 교기와 집기를 압수해갔다. 이는 동학교당에 직격탄이 되었고, 그 영향으로 동학교당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다행히 일본은 1945년 연합군과 한국에 항복하였지만, 1945년 이전에 교주와 부교주는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과적으로 동학은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동학교당에는 동학경전, 동학가사, 책판, 목활자, 각판(자)용구, 조판용구, 인쇄용구, 제책용구, 의례 복식, 교기와 기타유물을 포함하여 모두 289종 1,425점이 전래되고 있다. 이들 유물은 동학의 종교적 특징과 그 사적 변모과정을 연구하는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이며, 가사문학과 한문학 연구 자료의 보고이며, 국어사 자료와 사회교육사 자료로서의 가치도 있으며, 한국 서지학 연구와 인쇄문

\* 본고는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동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 학술용역사업단이 개최한 국제학술대회(2014.12.19.)에서 발표한 원고를 보충한 것이다.

\*\* 계명문화대학교 명예교수. 서지학전공(hspae1977@empas.com)

접수일: 2015년 3월 7일 최종심사일: 2015년 3월 12일 심사완료일: 2015년 3월 24일

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중요성이 있다. 본고는 이들 유물의 중요성에 대해 7가지의 가치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要語: 김주희, 김낙세, 상주 동학교당, 동학경전, 동학경서, 동학가사

<ABSTRACT>

Kim, Ju-hui (김주희, 1860-1944), the leader of Sangju Donghak Church (상주동학) learned a lesson from the Woogeumchi Battle (우금치전투) that the physical resistance was not the only way to achieve the goals; rather, a spiritual armament was more effective and valuable in the long run. Kim, Ju-hui put his idea, religious aspects of spiritual relief into practice by educating the followers on the truth which were in the Donghak Scriptures (동학경전), so that the teachings could be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Since Kim, Ju-hui settled down at Woogi-ri, Euncheok Myon, Sangju City in 1915, the influence of Sangju Donghak rapidly grew. By the end of 1920 the total number of followers reached more than 1,500. This led Kim Ju-hui playing a dangerous game of hide-and-seek with the Japanese police and chasers for almost thirty years. Kim Ju-hui established a new direction of Donghak in theory and practice, by proposing a new explanation of Donghak philosophy. Kim Nak-se (김낙세), the deputy leader took efficient care of all the affairs of the Church. In reality, Kim Nak-se was involved in all the important affairs - getting the church officially sanctioned, construction of the Church buildings, printing of Scriptures and Songs, the mission work and the education of followers. In view of his role and status, Kim Ju-hui can be likened to the Founder, and Kim Nak-se to the role of the manager. Kim Nak-se's another noteworthy achievement was his diaries, written in his own hand. His diary of 17 volume set has been likened to a time capsule that contains all the affairs for the previous 70 years. They held meetings and services, and printed and distributed the Scriptures and the words of Chants (가사) on Donghak. Accordingly, the Japanese authorities continuously monitored and inspected the activities of Donghak, eventually in June 1936 they closed down on the meeting halls and the printing shops without any prior notice. From then on the hide-and-seek games started. They held meetings and services secretly, and printed the Scriptures and words of Chants in secret. In November 1943, several Japanese police arrested members, captured mounds of papers and books together with their symbolic flags and took them to Sangju Police Station. This was a direct hit to the Donghak, and thereafter the influence of the Donghak was drastically weakened. Finally, Japan surrendered to the Allies in 1945 and Korea got independence. Unfortunately the leader and the deputy leader had died before 1945 from the after-effects of torture by the Japanese police. So Donghak had declined drastically.

Including Donghak Scriptures, words of Chants, woodblocks, movable types, printing instrument, mass vestments, flags and furnishings, 289 kinds of 1,425 pieces were handed down and stored in Sangju Donghak Church. These materials are not only great for the study of the religious significance of, and the history of Sangju Donghak, but also great materials for the study of the history of Korean linguistics, social education, bibliography and printing. In this study, 7 significance and values of these materials stored in Sangju Donghak Church have been analyzed.

Key words: Kim, Ju-hui, Kim Nak-se, Sangju Donghak, Donghak Scriptures, words of Chants

## 1. 緒 言

본고는 상주 東學敎堂의 記錄物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다. 기록물은 어떤 정보를 갈무리하여 특정 신호로 바꾼 후, 어떤 매체에 남겨진 것을 말한다. 특정 신호가 꼭 문자나 숫자일 필요는 없으며, 매체가 반드시 종이나 평평한 판일 필요가 없다. 기록물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입증 가능한 가치를 지닌 분야에서 영구적이거나 장기간 보존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상주 동학교당에 전승된 서적, 판목, 인쇄용구는 기록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慶尙北道 尙州市 銀尺面 于基里에는 1900년대초에 창시된 동학계의 하나의 중심지였던 동학교당이 있다. 현재 상주 동학교당에 수장되어 있는 유물은 조선 말기와 일제 식민통치기간에 상주에서 활동했던 동학교도들의 유물이다. 동학교당은 1999년 12월 경상북도 지방문화재 민속자료 120호로 지정되었다. 여기에 전승되어온 유물은 전적(경전, 가사), 책판, 목활자, 각판(자)용구, 조판용구, 인쇄용구, 제책용구, 복식, 교기와 기타유물을 포함하여 모두 289종 1,425점인데, 1995년 3월 경상북도 지방 문화재 민속자료 111호로 지정되었고, 2013년 12월에는 국가 기록원의 국가지정 기록물 제9호로 지정되었다.

상주 동학교당은 1919년 교당을 건립하고, 1922년에는 일제의 유화정책과 교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총독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전도사를 각지에 파견하여 교세가 확장되었으나, 일제말기에 쇠퇴되기 시작하였다. 교세가 확장되던 기간에 『東經大全』을 비롯한 경전, 『龍潭遺詞』를 비롯한 국한문의 가사, 민중 특히 부녀자들에게도 널리 알리기 위한 한글가사도 간행하였다. 전통적인 가사형식의 동학가사는 난해하지 않았으므로 널리 전파될 수 있었다. 구전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교도가 증대하면서 필사로는 널리 전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활자 또는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상주 동학교당은 조선 멸망 후의 혼란기에 민중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했으며, 신구 인쇄기술의 전환기에 전통인쇄술을 고수한 보루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그렇기에 상주 동학교당에는 현재까지 전적 135종, 책판 65종 793판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 전적은 수장서적의 목록 1종, 경서 11종, 가사 87종, 기타 서적 17종, 고문서 19종이며, 책판은 경서책판 7종 82판, 가사(한글본) 27종 355판, 가사(국한문혼용) 29종 354판, 기타 책판 2종 2판이고, 이외 인쇄용구 30종 102점, 인장 6종 17점<sup>1)</sup>이다.

동학경서는 동학의 기본사상이 수록된 서적이고, 동학가사는 동학의 교리를 가사로 표현한 것이다. 교당에서는 이들 서적을 적극 활용하여 전교한 바 경서와 가사를 대상으로 한 종교적인 측면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가사는 교리뿐만 아니라 문학 형성에도 중요한 구실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연구되었다. 또한 역사적인 면에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미진한 점이 많은 편이다. 동학교당 기록물의 서지학적 특징과 가치에 대해 밝힌 바도 아직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학교당에 전존되고 있는 동학 관계 서적, 인쇄용의 판목과 활자, 그 보조용구를 조사, 분석하고 그 특징과 가치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 2. 尙州 東學教堂의 成立

상주 동학교당에 수장되어 있는 유물은 조선 말기에 대두된 동학과 관련이 있다. 거슬러 올라가 동학은 임진과 병자의 양란을 겪은 후 17세기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이 발생한 것이 그 시대적 배경이 된다. 이어 순조 이후 김씨 일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왕도정치의 기반이 붕괴되었고, 정치기강의 문란으로 말미암아 조정의 권위가 실추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반은 과거를 통해 관계에 진출하는 경로가 막혔고, 대신 매관매직이 성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몰락

1) 김문기, “상주 東學敎와 동학교당 所藏 遺物,” 『상주 동학교당 소장유물도록』(상주: 2006), 179.

동학교당에 수장된 유물의 종수와 개체수는 위의 자료에서 인용하였다. 서적의 점검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至難한 일이다. 따라서 여러 차례 거듭 점검해야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동학교당의 유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수치가 재차 확인될 것이다. 또한 경서와 가사는 배포되지 않은 복본도 상당수 있으므로 각 서적의 책수는 현재로서는 무의미하다 하겠다.

한 양반은 생활을 위해 훈장, 의원, 상공업이나 농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조정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삼정의 문란으로 이어졌고, 이는 농민 수탈로 이어져 농민이 토지에서 쫓겨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런 현상은 19세기 이후 두드러져 농촌에서 고용노동을 하거나, 고향을 떠나 외지에 나가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노동자가 되기도 하였다.

이런 상태로 민생은 도탄에 빠져 동요하였으나, 조정이나 관료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기성의 사상이나 종교는 질곡에 허덕이는 민생을 구제할 가치관이 되지 못하였다. 마침 도입된 천주교가 소외된 계층의 관심을 끌고 있었고, 서구열강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민족적 위기감이 팽배된 시기였다. 이런 시점에 허물어지고 있는 유학을 대치하고 물밑 듯이 들어오는 서학에 대항하여, 민중에게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면서 대두된 것이 東學이었다.

동학은 전통적인 儒佛仙의 3교를 통합하여 한울님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종교 사상으로 발전하면서 민중 속으로 급속하게 침투해 들어갔다. 동학은 水雲 崔濟愚(1824-1864)가 철종 11년(1860) 경주의 龍潭에서 깨우치고, 人乃天 天心即人心의 사상을 기반으로 輔國安民, 布德天下, 廣濟蒼生이란 기치로 창시하였다. 수운은 질곡에 허덕이는 민생을 구제하려고 포교를 시작했지만 경주에서는 성공하지 못하였고, 호남지방으로 진출하면서 교세확장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후 대단한 세력으로 전파되어 포교 3년만에 신도가 14接 3,000명에 달했다. 그러자 유림이 먼저 동학을 이단시하였고, 결국 조정에서 금압하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접소를 순행하던 수운은 철종 14년(1863) 邪道亂政이란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서울로 압송되는 도중 철종이 승하하자 대구감영으로 이송되었고, 결국 고종 1년(1864) 3월에 참수되었다.

수운의 도통을 계승한 2대교주 崔時亨(1827-1898)은 守心敬天의 종교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최시형 말기에 동학은 호남으로 중심이 옮겨지고 민중의 종교로 발전된다. 그는 조직강화에 힘써 교단의 기초로 접주를 두고 실행기관으로 전국에 六任所를 설치하여 종교로서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고종 29년(1892)부터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하면서 적극적으로 포교하여, 포교의 자유와 탐관오리의 숙청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한편 고종 31년(1894) 廣濟蒼生의 이념에 투철한 고부 접주 全奉準은 南接이라 자칭하고 최시형의 北接에 맞서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즉각적이고 혁명적인 행동을 취해 동학농민혁명(1894-1895)을 일으켰다. 전봉준과 이념의 차이가 있던 최시형은 처음에는 동학농민혁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뒤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그러나 이 혁명이 청국과 일본의 개입으로 실패함으로써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교세는 약화되었다. 이후 최시형은 피신 도중 원주에서 체포되었고, 광무 2년(1898) 사형되었다.

3대 교주 孫秉熙(1861-1922)에 이르러서는 관서와 관북지방을 중심으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또한 道卽天道 學卽東學을 표방하여 天道敎로 발전시키면서 교세는 더욱 확장되었다. 그러나 남북점의 대립은 더욱 노골화되어 도통전수에 불만을 품은 원로들이 독립된 교당을 설립하여, 一進會, 進步會, 侍天敎, 上帝敎, 靑林敎, 大同敎, 敬天敎 등 30여개 교파로 분열되면서 교세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상주 동학교당도 이때 분립된 교당의 하나로서 상주와 안동을 중심으로 영남, 호남, 강원도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남점으로 자처했다.

상주의 동학교는 융희년간을 전후하여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포교한 敬天敎와도 관련이 있다. 최시형의 북점에 반발하여 南接道主를 자처한 경천교 교주 金時宗과 그의 제자 金洛春을 거쳐 孫弟子 金周熙에 이르게 되었다고 알려져 왔다.<sup>2)</sup> 경천교와 결별한 김주희는 崔濟愚-崔時亨-孫秉熙로 이어지는 북점과는 계통을 달리하여, 崔濟愚-金周熙로 이어지는 남점으로 자처하였다.

상주의 동학교는 동학의 대도를 크게 깨우친 金周熙(1860-1944)가 창도한 것이다. 김주희는 경주 김씨로 자는 敬川, 호를 三豊, 존호를 靑林이라 하였다. 부친 允集의 차남으로 공주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따라 동학에 입문하였다. 김주희는 젊어서 동학군에 가담하였다가 동학혁명이 실패하자 속리산 심원사로 피신해 은거 수도하면서, 최제우의 동학을 體天思想으로 체계화하였다. 이때 잠시 최제우를 사사한 후 北接都主 최시형에 대해 남점도주라 자칭한 김시종이 융희 3년

2) 村山智順, “朝鮮의 類似宗教,” 『調査資料』 제42輯(京城: 朝鮮總督府, 1935), 233-234.

(1909) 안동에서 포교를 시작한 경천교(1904-1912)에 몸을 담았다. 金侍宗, 鄭侍宗 등으로 불린 경천교 교주 김시중은 鄭得雨에게 도통을 전수하였고, 정득우는 교도들을 군대화하여 무력투쟁하려고 하자 불만을 품은 김주희는 결별하였다.

김주희는 융희 4년(1910) 상주군 은척면 우기리에 들어와 1915년 교당을 건축하고, 金洛世(1869-1944), 任達文 등과 경천교가 망할 때까지 은북포교를 하였다. 당시 천도교는 관서와 관북으로 교세를 확장시켰고, 교주가 된 김주희는 소외된 영남을 중심으로 교세를 잡고 동학의 연원인 南方을 강조하여 천도교와 대립하면서 교세를 확장시켰다.<sup>3)</sup> 마침내 1922년 5월 29일 조선총독부의 공인을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東學敎라 칭하였다.<sup>4)</sup>

일제의 유화정책에 힘입고 교도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1915년 교당을 건립하였고,<sup>5)</sup> 1922년 5월에는 동학본부 교당의 간판을 걸고 개교식을 거행하였다.<sup>6)</sup> 당시 중심인물인 교주는 김주희, 부교주는 金洛世였다. 부교주 金洛世는 豐山사람으로 河應이라고도 하고, 자는 世淑, 호는 河菴이다. 1900년경 동학에 입교하였고, 1915년경 안동에서 상주 우기로 옮겨 본격적으로 포교에 가담하였다. 그는 김주희를 교주로 하고, 스스로 부교주가 되었다.<sup>7)</sup> 본거지를 마련한 교당에서는 전도사를 각지에 파견하여 교세의 확장에 힘쓴 결과, 1929년경에는 충청북도와 강원도에까지 미쳐 약 1,500명의 교도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1934년경부터 교세가 쇠퇴되어 1포교 9지구에 약 800명이 있는 정도였다.<sup>8)</sup>

교주 김주희는 동학을 철저히 종교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시세변천을 불문하고 정치득실을 간섭하지 않는 단순한 繼天立極을 목적으로 한 종교로 만들었다.

3) 김상일, “상주지역 동학교단의 활동과 동학가사,” 『동학학보』 제10권 제2호(2006), 88.

4) 『東學敎法』(京城: 漢城圖書(株), 1922). 1.

5) 『祝式』木版本(尙州: 東學本部, 刊年未詳), 第五雜記篇, 第五上樑祝, 張26b-27a.

6) 『時警歌』寫本(尙州: 東學本部, 1920), 張16-18, 東學敎 由來.

『敬訓』寫本(尙州: 東學本部, 1922), 張57b-58a, 龍潭淵源條.

7) 『判決』寫本(大邱: 大邱地方法院, 昭和 19: 1944), 刑公第134號. 여기에는 金氏를 개명하였으므로 大稼洛世라고 기록되어 있다.

8) 村山智順, “朝鮮의 類似宗教,” 『調査資料』 제42輯(京城: 朝鮮總督府, 1935), 233-234.

이는 廣濟蒼生の 이념으로 즉각적이고 혁명적으로 실천하고자 한 남접의 전봉준과도 차이가 있고, 동학농민혁명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최시형과도 차이가 있었다. 상주 동학교는 일제에 대해서 철저한 무저항으로 일관하면서 민중교화에 힘썼다. 그러나 동학의 전통적인 배일의식과 정교분리의 교리에 따라 일제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경찰의 끊임없는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상주 동학교의 교세가 날로 번창하자 일제는 단속과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경은 교도의 동정을 감시하고 호출하거나,<sup>9)</sup> 교당을 불법으로 수색하거나,<sup>10)</sup> 교주를 비롯한 교도를 구금하고,<sup>11)</sup> 동학교당의 서적을 검열하고,<sup>12)</sup> 압수하기도<sup>13)</sup> 하였다. 마침내 일제는 노골적으로 탄압을 가해, 1932년 이후 교도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교세는 급격히 쇠퇴되었다.

1936년에 이르러 일본 경찰은 동학교당에서 황당무계한 교설을 유포했다고, 공인을 취소하고 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집회하다가, 1943년 10월 神力으로 대동아전쟁에서 日本이 英美에 패할 것이고, 朝鮮은 獨立할 것이라는 불온한 언설을 유포한 죄로 교주, 부교주와 『東學教籍』에 수록된 핵심교인이 체포되고, 서적, 복식, 집기 등이 압수되는 직접적인 탄압을 받았다.<sup>14)</sup> 대부분의 교인은 곧 풀어주었으나, 교주 김주희와 부교주 김낙세는 무단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출판하였다고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이란 죄목으로 대구경찰서에서 복역하게 하였다. 고령으로 지탱하지 못한 김주희는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944년 병으로 사망하였고, 부교주 김낙세도 1944년 대구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sup>15)</sup> 이로써 교주와 부교주가 동시에 별세하고, 집회가 불법인데다 후

- 
- 9) 金洛世, 『花開錄; 靑鼠重陽節』 寫本 (尙州: 1927), 1924.9.16.; 1925.3.17. 張1a, 12a.
  - 10) 金洛世, 『日記; 壬戌之秋七月朔朝』 寫本 (尙州: 1924), 1922.7.25.-27. 張3a.
  - 11) 金洛世, 『日記; 壬戌之秋七月朔朝』 寫本 (尙州: 1924), 1924.7.29. 張38a.  
金洛世, 『花開錄; 靑鼠重陽節』 寫本 (尙州: 1927), 1927.2.28. 張56b.
  - 12) 金洛世, 『花開錄; 靑鼠重陽節』 寫本 (尙州: 1927), 1925.10.25. 張25b.  
金洛世, 『收桑錄二; 歲在己巳庚午月』 寫本 (尙州: 1932), 1929.12.14. 張18b.  
金洛世, 『收桑錄三; 玄猿大壯之月』 寫本 (尙州: 1933), 1933.3.8. 張27b.
  - 13) 金洛世, 『日記; 庚申六月日』 寫本 (尙州: 1922), 1920.11.25. 張10a.  
金洛世, 『日記; 壬戌之秋七月朔朝』 寫本 (尙州: 1924), 1924.7.27. 張38b.
  - 14) 『判決』 寫本 (大邱: 大邱地方法院, 昭和 19: 1944), 刑公第134號.

계자도 양성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동학의 교세는 급격히 쇠퇴되었다. 이때 압수된 물품은 광복 후 다시 회수되었으나 일부는 산일되었다.

그러나 동학교당은 정부수립 이후에도 존속했었으니,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1951년에 간행된 목판본 가사 『不易』과 『시경가』가 전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靑林布德 102년(1961) 金周英에게 敬浩堂, 103년(1962) 池德壽에게 春齋, 107년(1966) 朴元涉에게 守一堂이란 堂號를 내린 고문서가 전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 3. 東學敎堂 書籍 刊行의 略史

김주희가 1915년 상주읍 은척면에 교당을 건축하고 본격적으로 포교하여 교인이 증가하게 되자 서적이 절실하게 필요하였을 것이다. 초기에는 북접에서 간행한 서적을 토대로 필사해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접에서는 해월 최시형 시대부터 서적을 간행했는데, 확실한 것은 『東經大典(聖經大典)』을 고종 17년(1880, 北接, 麟蹄), 고종 20년(1883, 北接, 木川), 고종 25년(1888, 北接, 麟蹄), 고종 27년(1890, 麟蹄), 고종 30년(1893, 漢陽, 報恩), 고종 31년(1894, 木川)에 목판으로 간행했고, 고종 20년(1883, 慶州接)에는 木活字로 간행한 바 있었다. 『龍潭遺詞』도 간사방법 미상이나 고종 18년(1881, 北接, 丹陽)에 간행한 바 있고, 고종 20년(1883, 北接, 木川), 고종 24년(1887, 北接), 고종 25년(1888, 北接, 麟蹄), 고종 30년(1893, 報恩)에는 목판으로 간행했고, 고종 20년(1883, 慶州接)에는 木活字로 간행했다.<sup>16)</sup> 이 두 경서는 동학교의 연원이 되는 龍潭 즉 水雲이 편찬한 것이므로 북접은 물론 상주 동학교당에서도 기본경서였다. 그러나 3대교주 손병희가 설립한 中央總部에서 연활자로 간행한 『天約宗正』, 『交友自省』, 『覺世眞經』 등 16종의 서적<sup>17)</sup>은 남북접이 결별한 이후에 간행된 것이므로 상주

15) 柳鐸一, “東學敎와 그 歌辭,” 『韓國語文論叢』(又村姜馥樹回甲記念論文集, 1976), 553. 『死亡診斷書』寫本 [大邱: 大邱刑務所, 1944].

16) 裴賢淑, “尙州 東學敎堂 刊行과 收藏 書籍考,” 『書誌學研究』 제22집(2002), 43.

17) 裴賢淑, “尙州 東學敎堂 刊行과 收藏 書籍考,” 『書誌學研究』 제22집(2002), 45.

동학교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서적이었다.

그러므로 동학교에서는 水雲의 저작과 교주 김주희를 중심으로 한 당직자의 저작을 주로 사용하였다. 동학교는 교당의 설립허가(1922)를 받기 이전부터 간행 사업을 전개했는데, 『教正經』(1909, 목활자본)과 『경운가』(1920, 목판본)는 1922년 이전의 간본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教正經』에는 ‘포덕한 지 50년’이란 표현이 있다. 또한 1909년 간행의 『教正經』의 권말에는 ‘孔夫子誕降二千四百六十年己酉(1909)’란 간기가 있고, 1924년에 간행된 『聖經』에 합철된 『教正經』의 권말에는 ‘孔夫子誕降二千四百六十一年庚戌(1910) 月 日’이란 간기가 있다. 따라서 김주희가 경천교 시절 1909년과 1910년에 두 차례 『教正經』을 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920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경운가』에는 간기나 판권이 없다. 그러나 ‘경신 스월오일’이라 기록된 표지를 통해 1920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1922년 김주희가 상주 은척에 교당을 설립할 무렵에는 대부분의 작품이 저작된 것으로 보인다. 부교주의 일기에 1917년도에는 『內修道』(1.8), 1919년도에는 『신화가』(2.8), 1920년도에는 『大全』(5.4), 『林下遺書』(11.11), 『道源經』(12.20), 『漁父詞』(12.20), 1921년도에는 『警和歌』(1.10), 『勸農歌』(2.9), 『道和經』(2.9), 『昌德歌』(2.18), 『警運歌』(4.23), 『職分歌』(4.28), 『變易歌』(5.12), 『昌善歌』(5.24), 『論學歌』(6.6), 『春修歌』(6.6), 『道德歌』(6.24), 『信心篇』(7.21), 『年時歌』(8.17), 『昌道歌』(8.17), 『通運歷代』(8.29), 『虛荒歌』(10.28), 『解運歌』(11.11), 『明察歌』(11.26), 1922년도에는 『心學歌』(5.25), 『擇善修德歌』(12.1), 『夢中書』(12.7), 『弔乙道德歌』(12.26)<sup>18)</sup>가 필사, 대출, 불법탈취, 번역한 것으로 빈번하게 언급되어 있어서 이 기간에는 이미 대다수가 저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필사해서 전교하다가 교도가 증가하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간행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교당이 설립되자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으므로, 1922년부터 193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서적을 간행하였다. 동학경서는 한문으로만 간행했으나, 동학가사는 유식자와 서민을 위해 국한문혼용체와 한글체 2종으로 간행하였다.

18) ( )의 숫자는 월일을 의미한다.

#### 4. 東學敎堂 傳存 書籍과 印刷用具

융희 4년(1910) 상주군 은척면에 들어온 김주희는 김낙세, 임달문 등과 초기에는 은복포교를 하다가, 김낙세 부자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1922년 동학교당으로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았다. 이후 포교를 위한 간행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후 1933년까지 12년간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간행사업을 전개했는데, 이때 간행된 서적은 작은 교단으로서는 상당히 방대한 양이었다.

교세는 상주, 문경, 예천, 영풍, 안동 등 경북을 중심으로 충북과 강원도까지 미쳤고, 간행된 서적은 적극적으로 배포하였다. 배포를 위해 회의를 하기도 하였다.<sup>19)</sup> 때로는 교인이 직접 교당에 와서 구입한 경우도 있었고,<sup>20)</sup> 때로는 경교장 이하 교직자가 직접 지방에 가지고 가서 보급하기도 하였다.<sup>21)</sup> 이렇게 전파된 서적은 일경에 압수당하기도 하고, 전쟁을 겪었고, 장구한 시일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가 되지 못한 경우도 있어 현재는 극히 일부만 전래되고 있다. 그 자료를 망라해서 소장하고 있는 곳은 상주 동학교당이며, 이외에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도 상당수 소장되어 있다.

상주 동학교당의 경서와 가사의 간본은 목활자본 4종, 석판본 1종, 연활자본 1종, 목판본 77종이 있다. 이 가운데 목활자본, 석판본, 연활자본은 경서류에서만 볼 수 있고, 가사나 목록류에서는 볼 수 없는 판본이다. 기타 서적은 대개 사본이고, 연활자본과 목판본은 극소수이다. 동학교당의 유물은 일제 강점기에 압수당한 과정에서 망실되거나 회수되지 못한 자료가 다수 있다. 현재 동학교당에 남아 있는 사본 가운데 부교주인 김낙세의 친필 사본임을 표기한 사본이 상당수 있다.<sup>22)</sup> 회수된 자료는 잘 보존되어 있다. 동학교당에 전래되는 기록물을 목록류,

19) 金洛世, 『日記; 庚申六月日』 寫本 (尙州: 1922), 1922.6.24. 張47b.

20) 金洛世, 『收桑錄二; 歲在己巳庚午月』 寫本 (尙州: 1932), 1929.7.15. 張7a.

21) 金洛世, 『日記; 庚申六月日』 寫本 (尙州: 1922), 1922.6.25. 張47b.

金洛世, 『收桑錄一; 赤兎青槐之月』 寫本 (尙州: 1929), 1927.9.4. 張11b, 1929.2.2. 張52a.

22) 지시기명가, 사본, 1920 : 신실시행가, 사본, 1920 : 슈기직분가, 사본, 1922, 河庵이란 金洛世의 장서인 : 弓乙信和歌, 사본, [1922] 河庵 장서인 : 룡담유스, 사본, 1911, 1920, 1920년 본에는 河庵의 장서인.

동학경서류, 동학가사류, 기타서적, 인쇄용구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4.1 目錄

동학교당에는 경서와 가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책자의 목록을 편성해 두었다. 동학교당에서 저작한 경서와 가사를 수록한 목록 『東經大全總目錄』이 전래되고 있다. 당시에 동학교당에서 편찬한 서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東經大全總目錄』의 편자는 알 수 없으나, 12장의 烏絲欄에 필사된 1책본이다. 표지서명 위치에는 『文閣備考』라 기록되어 있다. 본문에는 『東經大全』 卷1-10, 『룡담유스』 권1-40까지의 서명과 내용목차가 수록되어 있다. 1933년에 처음 필사되었는데, 일부 가 필된 부분이 있다. 처음 필사한 시기를 1933년으로 추정한 것은, 권말 紙頭의 연도는 “七三年”이고, 표지에 “黑鷄(癸酉, 1933)亥猪之月”이란 기록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추정한 것이다. 1951년에 제38 『시경가』를 간행한 직후에 동일한 필적으로 한번 수록되었고, 동년에 간행한 제39 『不易』 간행 이후에 다시 수록되어 있다. 권39와 권40은 앞의 필체와는 물론이고 서로 간에도 다르고, 지두에도 간행년도 표시가 없는 것<sup>23)</sup>으로 보아 후에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음 장에 기록된 自古比今歌 1, 送舊迎新歌 22, 昌歌 30, 廣告 35, 數回書 42, 順隨守職書 42, 立春詩 43도 수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학교당의 경서는 한문으로 저작되었고, 가사는 원칙적으로 한글본과 국한문본을 다 저작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두의 연도표기 “七〇年”, “七三年” 등의 기록은 龍潭布德 연도를 의미하며, 해당 서적의 간행년도로 추정된다. 아마도 동학교당의 서적을 열추 간행하고 난 후 정리차원에서 작성한 목록으로 추정된다. 서명 밑에는 面次가 기록되어 있다. 간혹 서명과 면차 사이에 “漢 無 國 무”, “漢 人名 國 人名”, “漢 無 國 人名” 또는 “漢 人名 國 무”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해 서적의 著作者和 登梓主務者들이 수록되어 있다. “漢 無”는 國漢文本은 없고, “국 무”는 한글본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예로 『림하유서』의 경우

23) 『東經大全總目錄』 寫本 (尙州: 東學本部, 1933), 張21-22.

“漢 無 國 무”라고 기록되어, 한글본, 국한문본 모두 없음을 알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서적에 저자는 김주희로 기록되어 있지만, 김주희를 저자로 보기 어렵다. 이 점은 柳鐸一교수가 이미 지적한 바<sup>24)</sup>와 같이 출판허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주희는 저자라기보다는 版權者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登梓主務者는 각 서적의 관련지에 기록된 登梓主務者와 동일하다. 다만 제4 『虛中有實歌』의 경우 국한문본이 간행되었고, 한글본이 간행되지 않았는데, 국한문본에는 기록이 없고 한글본에는 등재자 2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국한문본의 등재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해서적에는 등재자 명단이 수록되지 않았다. 또한 제33 『信實施行歌』는 당해서적에는 2명의 등재자가 수록되어 있으나, 총목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登梓主務者는 서적간행을 주관하거나 비용을 제공한 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글씨는 목록이 작성된 후 가필된 것이며, 장서점검하면서 가필된 내용으로 추정된다.

같은 내용이 수록된 목록인 『總目』도 전래된다. 이는 『東經大全總目錄』의 轉寫本이다. 내용은 앞의 『東經大全總目錄』과 동일하다. 여기에는 『東學歌辭』 권 38 『시경가』까지 수록되었으나, 이 뒤는 추록되지 않았다. 이 목록은 『시경가』가 간행된 1951년 『東經大全總目錄』이 추록된 후 이를 전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 4.2 東學經書

상주 동학교당에서 규정한 경서는 동학의 교리가 수록된 10종의 총서이다. 경서의 핵심은 수운의 저작인 『東經大全』이고, 나머지는 김주희의 동학교에서 저작한 것이다. 천도교의 중추사상인 人乃天, 後天開闢, 教政一致에 대해 김주희는 體天, 先天回復, 教政分離를 주장한 것이다. 體天史上은 한울님을 사람의 바깥에 존재하는 외재적 실재로 파악하는 이원적 세계관이다. 先天回復은 先天(수운 이전)을 조화로운 세계로 後天(수운 이후)을 타락한 세계로 파악한 것이며, 현단

24) 柳鐸一, “東學敎와 그 歌辭,” 『韓國語文論叢』(又村姜馥樹回甲記念論文集, 1976), 564.

계를 先天回復의 운으로 규정하여 순환사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敎와 政은 철저히 분리하여 順隨天理를 통해 영적구원을 추구하는 종교운동으로만 이끌었고, 일체의 정치권력에 대한 무저항, 비타협을 주장한 것이다. 이들 서적의 판권지에는 모두 김주희가 저자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역시 김주희 단독의 창작만은 아니다. 더욱이 수운이 저작한 『東經大全』의 저자도 김주희로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김주희는 판권소유자인 것이다. 경서는 동학경서는 <표 1>과 같다.

<표 1> 尙州 東學敎堂의 東學經書

書名	寫本			刊本					板木	
	張數	年紀	備考	張數	刊年	版種	登梓者	備考	板數	備考
東經大全(弓乙經)	36	未詳	副敎主筆 口訣	42	'22前	版 <sup>25)</sup>		口訣	13	
東經大全(弓乙經)	31	未詳	口訣	42	'22	石		口訣, 河庵		東洋堂
(天道)弓乙經	30	1920	口訣							
(天道)弓乙經	32	未詳	口訣						合附	
通運歷代				23	'29	版	蔡萬鎮	口訣	12	
道源經				26	'24	鉛		口訣		安東刊
道源經				20	'29	版	姜大齊, 姜大秀	口訣	10	
道和經				13	'29	版	吳願模, 吳悌伯	口訣	7	
敎正經				17	'09	活		口訣		4板
道正經				21		活		口訣		7板
道修經				16		活		口訣		5板
聖經 <sup>26)</sup>				38	'24	活		口訣		
聖經				33	'27	版		口訣	17	目次板
聖經				33	'29	版	朴道學	口訣		
道誠經				16	'29	版	朴春相		8	
東經大全之第十祝式	30	1920		30	未詳	活				
	사본 3종			판 6종, 석 1종, 연 1종, 활 5종					판목 7종	

25) 『聖經』은 敎正經, 道正經, 道修經을 합철한 책이다.

26) 版은 木版本, 石은 石版本, 鉛은 鉛活字本, 活은 木活字本.

전래되는 동학경서의 사본은 『東經大全』 2종, 『弓乙經』 2종과 祝式이 있다. 『東經大全』에는 수운 최제우가 철종 11년(1860) 4월 5일 無極大道를 창도한 후부터 고종 1년(1864) 2월까지 집필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布德文, 修德文, 論學文, 不然其然 4편과 座箴, 歎道儒心急, 前後八節 등 여러 시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수운의 말씀을 부연해서 체계적으로 해설한 것이 『弓乙經』이고, 나머지 경서는 교리를 부연 확장시킨 것이다. 축식은 獻誠篇, 婚禮篇, 喪禮篇, 祭禮篇, 雜記篇으로 구성되었는데, 여러 의식에 사용하는 축문의 양식을 수록한 것이다.

부교주가 쓴 사본 『東經大全』과 河庵의 장서인이 있는 석판본 『東經大全』은 부교주 김낙세의 구장본으로 보인다. 『弓乙經』은 『東經大全』과 합철되기도 하고 단독으로 제작된 책도 있다.

1909년에 목활자로 간행된 『敎正經』에는 “孔夫子誕降二千四百六十年己酉”란 간기가 있고, 판권지는 따로 없다. 이는 동학교당이 건립되기 이전의 서적이므로 경천교시대의 서적으로 볼 수 있다.

경서류는 목판, 목활자, 석판, 연활자를 활용하여 간행한 것을 볼 수 있다. 목활자본 5종은 『敎正經』, 『道正經』, 『道修經』, 『聖經』, 『祝式』이다. 『敎正經』은 이미 1909년에 간행된 바 다른 목활자본과는 활자체가 다르다. 『道正經』과 『道修經』은 조판체제가 유사하고 1924년 인출본과도 상이하므로, 『道正經』과 『道修經』도 1924년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敎正經』, 『道正經』, 『道修經』이 합편된 『聖經』은 1924년에 인출되었다. 이들 세 서적의 활자는 동일 활자가 사용되었으나 이전 간본의 활자와는 다르다. 『祝式』은 또 다른 활자로 인출되었다.

1922년에 석판으로 간행된 『東經大全 附 弓乙經』과 1924년에 연활자로 간행된 『道源經』은 좀 특이하다 하겠다. 1922년 4월 22일 『東經大全』, 『弓乙經』과 『警和歌』를 경기도청에 출판허가 신청을 하여 5월 20일 허가장이 나왔고, 5월 28일 『東經大全 附 弓乙經』을 석판인쇄하기로 계약했다는 기록이 있고, 윤5월 8일 인본작업이 끝났다<sup>27)</sup>는 것을 보아 이때 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警和歌』

는 현재 1929년 간본만 확인되었으므로 후일을 기대해야 할 형편이다. 『東經大全』과 『弓乙經』은 석판으로 간행해서 합철한 책이 전래되고 있다. 『弓乙經』은 『東經大全』에 합철된 서적을 제외하고는 간본이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석판인쇄는 東洋堂石版印刷所에 의뢰해서 간행하였는데, 아마도 본문에 朱色이 들어가 색채인쇄하기에 편리했기 때문에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할 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석판인쇄는 광무 1년(1888)에 설립된 관영 인쇄공장인 농상공부인쇄국에서 비롯된다. 삼십년이 지난 경상도의 농촌에까지 알려진 상황이 되어 동학교에서도 석판인쇄술을 이용해 경서를 간행하였으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道源經』은 2차례 간행되었는데, 연활자와 목판으로 각각 간행되었다. 1924년에 안동에서 연활자로 인출해왔으나 부족했으므로, 1929년에 목판으로 다시 간행한 것이다. 10종의 동학 경서는 1920년말에 대개 목판으로도 간행된 바 있으므로, 이후 이들 판목을 활용해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출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가장 큰 책은 1924년에 목활자로 간행된 『聖經』으로 32.5 × 22.2cm이고, 가장 작은 책은 목활자로 간행된 『教正經』으로 7행12자본으로 크기는 23.5 × 15cm이다.

### 4.3 東學歌辭

동학교당에서는 동학의 사상과 종교적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동학 경전의 내용을 토대로 가사로 만들어 전파시켰다. 이 동학가사를 40종의 총서로 만들었는데, 가사는 원칙적으로 한글본과 국한문본이 함께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식자층을 위한 국한문본과 서민을 위한 한글본을 동시에 제작한 것이다. 동학가사의 간본은 모두 목판으로 간행되었는데, 대개 판권지에 ‘龍潭淵源青林布德○年…尙州東學本部’란 간기가 있다.

동학교당의 동학가사는 『龍潭遺事』의 卷次를 붙여 하나의 총서로 만든 것이

27) 金洛世, 『日記; 庚申六月日』 寫本 (尙州: 1922), 西征日錄. 1922.4.22.; 5.20, 28; 윤5.8. 張 49b, 53a, 54a, 55a.

다. 모두 1책으로 제책되었다. 목판본의 판권지에는 저자가 김주희라 기록되어 있다. 수운선생의 가사인 용담가·안심가·교훈가·몽중노소문답가·도수사·권학가·도덕가·흥비가의 한글가사 8편을 수록한 제1『룡담유스』에도 저자는 김주희라 수록되어 있다. 동학가사의 거의 모든 책의 판권지에는 김주희 개인의 창작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김주희 개인의 창작뿐만 아니라 동학교당의 핵심 교직자가 창작하고 전승한 가사들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3·4조나 4·4조의 4음보 연속체의 가사이다. 따라서 『龍潭遺事』, 『尼슈도』, 『東學本義』를 제외한 37종의 동학가사는 1920-1930년대까지의 상주 동학교도들이 송독하던 동학가사를 집대성한 것이다.

동학가사는 경서의 간행이 대부분 마무리될 무렵인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간행된 양상을 볼 수 있다. 당시는 일제 강점기여서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sup>28)</sup> 동학교당에서 이들 서적을 일시에 판각할 수 없었으므로 순차적으로 판각해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출판허가, 경비, 목재조달, 각수 등의 匠人과 여러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판권지에 책값도 명기되어 있는데, 판매를 통해 유통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제29『開明共產歌』와 제37『知時開明歌』는 광복 후 2000년까지 동학가사를 망라한 서적에 수록된 바가 없다.<sup>29)</sup> 그 까닭은 교주 김주희와 부교주 김낙세가 일제의 고문으로 별세한 뒤 광복되었고, 광복 후 압수된 경전과 가사를 회수할 수 있었으나, 『開明共產歌』와 『知時開明歌』는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sup>30)</sup> 그러나 이 2종 가사는 동학교당에 엄연히 전래되고 있다. 다만 동학교당에서 공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28) 金洛世, 『日記; 庚申六月日』 寫本 (尙州: 1922), 1922. 5. 24. 張57a.

金洛世, 『收桑錄一; 赤兎靑槐之月』 寫本 (尙州: 1929), 1927. 8. 23. 張10b.

金洛世, 『收桑錄二; 歲在己巳庚午月』 寫本 (尙州: 1932), 1929. 7. 19. 張14a.

29) 檀國大學校栗谷紀念圖書館, 『韓國歌辭資料集成 v. 4-6』 影印本 (서울: 太學社, 1997). 『東學歌辭 I, II』 歌辭文學大系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柳鏞一, “東學敎와 그 歌辭,” 『韓國語文論叢』 (又村姜馥樹回甲記念論文集, 1976), 563-564.

30) 崔元植, “東學歌辭 解題,” 『東學歌辭 I』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ix.

않았던 것이다. 2000년 이후 정치적인,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하자 이를 공개하였는데, 그 중 『開明共產歌』는 먼저 공개된 바 있다.<sup>31)</sup>

#### 4.3.1 국한문본

전래되는 동학가사 가운데 제1 『龍潭遺事』, 제3 『昌德歌』, 제7 『內修道』, 제11 『心學歌』, 제38 『時警歌』, 제40 『東學本義』는 국한문본의 목판본이 전래되지 않고 한글본만 전래된다. 국한문본의 동학가사는 <표 2>와 같다. 국한문본은 대개 1929-1932년에 간행되었으나, 최후에 간행된 서적은 1951년에 간행된 제39 『不易』이다. 표의 납본년도는 柳尙和의 논문<sup>32)</sup>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유상화의 논문에서 納本이라 한 것은 간행 후 총독부에 납본한 책이란 의미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책은 『창덕가』(한古朝48-36-2), 『도덕가』(古朝23-22), 『昌善歌』(한古朝23-26) 등이다. 이들 서적에는 표지에는 납본이란 기록이 없으나, 권두 하방에 ‘朝鮮總督府警務局寄贈本’이란 장방형의 인장에 날인되어 있다. 이 책들은 납본의 의미에 합당한 서적이다. 표지에 納本했다는 기록이 있는 서적도 1972년에 동학교당에서 국립도서관에 기증한 경우도 있다. 이에 해당하는 서적이 『昌和歌』(古3810-2), 『오형시격권농가』(古3610-13), 『昌善歌』(古3810-1), 『택선슈덕가』(古3610-10)이다. 이들 서적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고, 등록된 년도가 1972년과 1973년이다. 이들 서적은 유상화의 개념으로는 후판본에 해당된다. 조선총독부도서관본이라 한 것은 일제강점기에 수집한 책으로 보인다. 후판본이라 한 것은 국립도서관에서 수집한 책이다.

31) 裴賢淑, “尙州 東學歌辭 開明共產歌,” 『古印刷文化』 v.9(2002. 12), 107-152.

32) 柳尙和, “상주 동학가사의 문헌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3), 13-15.

尙州 東學教堂 記錄物の 書誌學的 特徵과 價値

<표 2> 尙州 東學教堂의 東學歌辭(국한문본)

龍潭遺辭 之	書 名	寫 本			刊 本				版木
		張數	年 紀	備 考	張數	年 紀	版 種	納本	版數
第 一	龍潭遺事								
第 二	林下遺書				19	1932	木版本	1932	10
第 三	昌德歌								
第 四	虛中有實歌 (虛荒歌)				46	1932	木版本	1932	23
第 五	信心篇				39	1929	木版本	1932	20
第 六	警運歌				27	1929	木版本	1929	14
第 七	內修道								
第 八	昌道歌				40	1932	木版本	1932	20
第 九	弓乙信和歌	28	1922	副教主筆 河庵	28	1932	木版本	1932	14
第 十	昌和歌				24	1932	木版本		
第 十一	心學歌								
第 十二	論學歌				20	1932	木版本		10
第 十三	時格勸農歌				22	1932	木版本	1932	11
第 十四	仁善修德歌				19	1932	木版本		10
第 十五	漁父辭				31	1932	木版本	1932	
第 十六	年時歌				26	1929	木版本		13
第 十七	警和歌				29	1929	木版本	1929	15
第 十八	相和代明歌				22	1932	木版本	1932	11
第 十九	解運歌				25	1932	木版本		13
第 二十	春修歌				19	1929	木版本		10
第 二十一	道德歌				37	1929	木版本		19
第 二十二	昌善歌				22	1929	木版本	1929	11
第 二十三	安心致德歌				14	1932	木版本		7
第 二十四	守氣職分歌				17	1929	木版本	1929	9
第 二十五	明察歌				19	1932	木版本	1932	10
第 二十六	夢中書	33	未 詳	副教主筆	24	1932	木版本		
第 二十七	修德活人警世歌				20	1929	木版本		10
第 二十八	昌明歌				25	1932前	木版本		
第 二十八	昌明歌				25	1932	木版本	1932	13
第 二十九	開明共產歌				21	1932	木版本		11
第 三十	擇善修德歌				15	1932	木版本	1932	8
第 三十一	送舊迎新歌				20	1932	木版本		10

龍潭遺辭 之	書名	寫本			刊本				版本
		張數	年紀	備考	張數	年紀	版種	納本	版數
第三十二	運算時呼歌				16	1932	木版本		8
第三十三	信實施行歌				14	1932	木版本	1932	7
第三十四	弓乙道德歌				17	1932	木版本		9
第三十五	知時明察歌				12	1932	木版本		6
第三十六	弓乙歌				17	1932	木版本		
第三十七	知時開明歌				15	1932	木版本		
第三十八	時警歌	26	1920	金氏家藏					
第三十九	不易	39	1946	金氏家藏	43	1951	木版本		22
第四十	東學本義	1軸	未詳	教主筆					
第四十	東學本義	42	1920						
計		사본 5종 6책			간본 34종 <sup>33)</sup>				책관 28종

사본도 전래되고 있는 것은 제9 『弓乙信和歌』, 제26 『夢中書』, 제38 『時警歌』, 제39 『不易』, 제40 『東學本義』이다. 제9 『弓乙信和歌』의 사본은 부교주 김낙세의 필적이며, 장서인도 날인되어 있는 부교주 구장본이다. 표지에는 ‘黑狗中秋節贍成’이라 필사되어 있어서, 1922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기에 겹쳐서 첨부된 ‘保安法及出版法違反被疑事件, 證第四號 金洛世所有, 被疑者 金周熙, 金洛世’라 기록된 쪽지를 통해 일경에 압수되었다가 회수된 부교주의 서책임을 알 수 있다. 제26 『夢中書』도 부교주의 필사본이다. 필사본 제38 『時警歌』와 제39 『不易』에는 “銀城倉里金氏家藏”이란 장서기가 있다. 이는 은척의 창리에 살던 김씨의 장서였다. 제40 『東學本義』는 방책본과 권자본 2책이 전래되고 있다. 권자본에는 교주 김주희의 필적임이 밝혀져 있다. 따라서 교주 사망한 해 1944년보다는 먼저 필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본의 필사 시기는 대개 1920년인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큰 책은 1922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弓乙信和歌』로 32.2 × 20cm이고, 가장 작은 책은 1929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信心篇』으로 28.3 × 19.4cm이다.

33) 책수를 밝히지 않은 것은 가사에 따라 복본이 많이 전래되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기 때문이다.

### 4.3.2 한글본

사본이건 목판본이건 동학가사의 한글본이 전래되지 않는 것은 제4 『虛中有實歌』, 제39 『不易』, 제40 『東學本義』의 3종이다. 동학가사의 한글본은 <표 3>과 같다. 목판본 외에 사본도 전래되는 것은 제1 『룡담유스』 2책, 제3 『창덕가』, 제9 『궁을신화가』, 제12 『논학가』, 제14 『인선슈덕가』, 제17 『경화가』, 제18 『상화덕명가』, 제24 『슈기직분가』, 제33 『신실시행가』, 제37 『지시지명가』의 10종이다. 이 가운데 제1 『룡담유스』, 제24 『슈기직분가』, 제33 『신실시행가』, 제37 『지시지명가』는 부교주의 필적이고, 다른 제1 『룡담유스』, 제12 『논학가』와 제24 『슈기직분가』에는 부교주의 장서인인 河庵이 날인되어 있다. 가장 먼저 필사된 책은 '戊申(1908)十二月初七日'이란 연기가 있는 『인선슈덕가』이며, 대개 1910년부터 1922년 사이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사는 목판으로만 간행되었는데, 한글본 가사 가운데 가장 먼저 간행된 것은 1920년에 간행된 제6 『경운가』와 1925년에 간행된 『창덕가』이다. 『창덕가』에는 판권지에 1922년 7월 출판신청, 8월 출판허가, 1925년 12월 인쇄해서 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출판허가 후 3년이 지나 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대개는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 간행된 책이 남아있다. 마지막 간본은 1951년에 간행된 제38 『시경가』이다. 제34 『궁을십승가』의 경우 국한문본은 제34 『弓乙道德歌』인데 한글본은 서명이 조금 변경되었다.

제1 『룡담유스』에는 간행년도에 관한 기록이 없지만, 부교주 김낙세의 1927년 일기에 3월부터 『룡담유스』의 출판허가를 받기 위한 기록이 여러 차례 보이며, 마침내 8월 30일<sup>34)</sup>에 허가증이 나왔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1927년 연말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학교당에 전래하는 서적을 대상으로 간행년도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전래되는 서적이 후쇄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다. 初刻의 初印本の 연도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부교주의 일기를 모두 꼼꼼하게 분석한 연후에 가능한

34) 金洛世, 『收桑錄一; 赤兎青槐之月』 寫本 (尙州: 1929), 1927.8.23.30. 張10b-11a.

일이라 하겠다.

가장 큰 책은 寫本의 『창덕가』로 33.7 × 23cm이며, 가장 소형의 책은 1911년에 필사된 『룡담유스』로 20.7 × 20cm이다. 국한문본이나 한글본을 막론하고 사본만 전래되고 목판본이 전래되지 않는 책은 『東學本義』이다. 아마도 늦게 『龍潭遺事』에 편입되어 간행할 시간적 여건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尙州 東學敎堂의 東學歌辭(한글본)

룡담유사 지	書名	寫本			刊本				版木	
		張數	年紀	備考	張數	年紀	版種	納本年	版數	缺複
第一	룡담유스	44	1911	副敎主筆	42	1927	木版本		22	
第一	룡담유스	50	1920	副敎主筆 河庵						
第二	림하유서				19	1932前	木版本			
第二	림하유서				19	1932				
第三	창덕가	42	未詳		54	1925	木版本	1925	28	
第四	몽각허중유실가									
第五	신심편				39	1932	木版本		20	
第六	경운가				27	1920	木版本			
第六	경운가					1932				
第七	니슈도				21	1929	木版本	1932	11	
第八	창도가				40	1932	木版本		20	
第九	공을신화가	34	1915	朴在然藏	28	1932	木版本		5	9
第十	창화가				24	1932	木版本			
第十一	심학가				28	1932	木版本	1932	11	3
第十二	논학가	23	未詳	河庵	20	1929	木版本		10	
第十三	오형시격권농가				28	1932	木版本			
第十四	인선슈덕가	19	1908		19	1932	木版本		10	
第十五	어부스				29	1932	木版本		15	缺 1
第十六	년시가				26	1929	木版本		13	
第十七	경화가	37	未詳	朴德陽信	26	1932	木版本		13	
第十八	상화덕명가	11	1910		22	1932	木版本		11	
第十九	혁운가				25	1932	木版本			
第二十	춘수가				19	1929	木版本		10	
第二十一	도덕가				37	1929	木版本		19	
第二十二	창선가				25	1929	木版本		13	

尙州 東學敎堂 記錄物의 書誌學的 特徵과 價値

룡담유사 지	書名	寫本			刊本				版木		
		張數	年紀	備考	張數	年紀	版種	納本年	版數	缺複	
第二十三	안심치덕가				14	1932	木版本				
第二十四	슈기직분가	21	1922	副敎主筆 河庵	17	1929	木版本		9		
第二十五	명찰가				19	1932	木版本		10		
第二十六	운산몽중서				26	1932	木版本				
第二十七	슈덕활인경세가				21	1929	木版本		11		
第二十八	창명가				28	1932	木版本		14		
第二十九	기명공산가				21	1932	木版本		11		
第三十	택션슈덕가				15	1932	木版本		8	複 8	
第三十一	송구영인가				20	1932	木版本				
第三十二	운산시호가				16	1932	木版本		8		
第三十三	신실시행가	18	1920	副敎主筆	14	1932	木版本		7		
第三十四	궁을십승가				17	1932	木版本	1932	9		
第三十五	지시명찰가				11	1932	木版本		6		
第三十六	궁을가				17	1932	木版本				
第三十七	지시기명가	19	1920	副敎主筆	15	1932	木版本				
第三十八	시경가				21	1951	木版本		11		
第三十九	不易										
第四十	東學本義										
		37종			사본 10종 11책			간본 37종		관목 27종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래본 동학의 가사도 일시에 간행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서적의 간행년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판각에 시차가 있었음은 물론이고, 판각된 관목은 두고두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인출해낼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인출되었던 까닭이다.

#### 4.4 其他

동학경전과 동학가사를 제외한 서적은 양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다양한 내용들의 서적이 전래되고 있다. 歌辭 8종, 고문서 12종, 서적 18종, 版木 2종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尙州 東學敎堂의 其他 記錄物

區分	書名	冊數/張數	年紀	版種	版本	備考
歌辭	東學敎書	1冊	1931	寫本		가사 26수
	訓家詞	1冊	1932	寫本		용담유사9편, 연원가
	知止歌	1冊		寫本		지지가, 궁을가
	은하구곡가	1軸		寫本		한글본
	은하구곡가	1軸		寫本		한글본
	님오삼일화전가	1軸		寫本		한글본
	지시경세가	1軸	1926	寫本		한글본
	찬시가	1軸		寫本		한글본
	道德論說歌	1軸		寫本		
古文書	三才感應圖	1枚		寫本		圖
	五方旗幟擁衛次序	1枚		寫本		
	修敎士任命狀	1枚	1914	寫本		郭東一
	旅券	1枚		寫本		
	海外旅行許可書	1枚	1922	寫本		부교주의 子 金秉鐸
	東學趣旨書	1枚	1922	鉛活字, 木版本	漢城圖書(株)	複本 多數
	河庵先生門人錄總則	1枚	1929	鉛活字		
	堂號	5枚		寫本		
	信號	1枚	1933	寫本		
	判決	1冊	1944	寫本		
	死亡診斷書	1枚	1944	寫本		부교주
祭文	3枚		寫本		교주	
其他書籍	河庵日記	17冊	1944	寫本		
	東學敎法	1冊	1922	鉛活字		國漢文本
	東學敎籍	2冊	[1943]	寫本		缺本 4冊
	慶州金氏世系	1冊		寫本		
	慶州金德龍世系	1冊		寫本		
	敎旗源本	1冊		寫本		圖
	記忘	1冊		寫本		複本
	大先生沿革史	1冊		寫本		國漢文本
	趣旨	1冊		寫本		國漢文
	敬訓	1冊		寫本		圖
	訓敬	1冊		寫本		

區分	書名	冊數/張數	年紀	版種	版木	備考
其他書籍	追遠錄	1冊		寫本		
	時到記	1冊	1920	寫本		庚申十月初三日獻誠時
	收業雜錄	3冊	1926	寫本		丙寅臨月六日
	弔客錄	1冊	1944	寫本		甲申十一月二十八日
	座目	1冊		寫本		
	相助稷案	1冊		寫本		
	桓檀古記	1冊	1984	寫本		
版木	信狀	1板		版木		
	禮張及趣旨書	1板		版木		

이중 가사 8종은 동학가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원래 『龍潭遺事』에 편입시킬 것을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東學敎書』는 대개 동학의 경서와 가사를 합칭할 때 흔히 사용된 명칭이지만, 이 책은 단독서적이다. 제2권 『林下遺書』, 제18권 『相和大明歌』와 제29권 『開明共產歌』부터 제37권 『知時開明歌』까지의 가사를 골고루 필사한 것으로, 경탄가, 道成歌, 지지가, 八卦變易歌, 원시가, 天理順數開明歌, 時勢歌, 턴디부부도덕가, 弓乙歌까지 모두 26수의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 『訓家詞』에는 『용담유사』 9편과 연원가가 수록되었고, 『知止歌』에는 지지가와 궁을가가 수록되었다. 이외 부교주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은하구곡가』와 『님오삼월화전가』가 있다.

고문서도 여러 점 수장되어 있는데, 『三才感應圖』, 『五方旗幟擁衛次序』, 『堂號』, 『信號』, 『修敎士任命狀』, 『祭文』, 『判決』, 『死亡診斷書』는 사본으로 제작되었고, 『河庵先生文人錄總則』은 연활자, 『東學趣旨書』는 목판과 연활자의 2종 인본이 전래되고 있다. 『旅券』과 『해외여행허가서』는 부교주의 아들 金秉鐸이 1919년 군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만주에 가기 위해 신청한 서류라고 한다.

기타서적 가운데 가장 방대한 서적은 『東學日記』로 현재 17책이 전래되고 있다. 일기에는 통일된 서명이 없이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東學日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기의 주체가 분명한 이상 불분명한 명칭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분명하게 표현하면 『河庵金洛世尙州東學敎堂副敎主日記』일 것이나, 동학 내부에서는 『副敎主日

記』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칭하는데는 『河庵日記』로 총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교주의 일기는 고종 27년(1890)부터 1943년까지에 기록된 것으로 사실상 상주 동학교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특히 『日記(庚申六月日)』에는 국한문 혼용체의 『西征日錄』이 권말에 별편으로 부기되어 있는데, 동학교 설립문제로 경성을 다녀온 여행일지이다. 이를 통해 동학교당의 설립에 대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부교주일기의 서명이나 권차에 일련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25년분의 일기가 망실되었기 때문에, 전체 책수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표 5> 金洛世 副教主 日記 目錄

書名	干支年度	西紀年度	期間(大略)
日錄 第一	庚寅 10.26.-辛卯 11.21.	1890-1891	13개월
日錄 第二(辛卯陽生日始)	辛卯 11.22.-壬辰 12.29.	1891-1892	13개월
征邁錄 第三(癸巳)	癸巳 1. 1.-癸巳 12.30.	1893-1893	12개월
矢心篇(甲午)	甲午 1. 1.-甲午 11.10.	1895-1895	11개월
補聽錄(乙未)	乙未 1. 1.-乙未 12.30.	1896-1896	12개월
丙申日記	丙申 1. 1.-丁酉 12. 6.	1897-1898	24개월
(所在未詳)	戊戌 1. 1.-丙辰 12.24.	1899-1917	20년
日記	丙辰 12.25.-己未 2.30.	1917-1919	25개월
日記(己未三月日)	己未 3. 1.-庚申 6.20.	1919-1920	16개월
日記(庚申六月日) 西征日錄 부기됨	庚申 6.21.-壬戌 6.30. (壬戌 4.17.-壬戌 윤5.25)	1920-1922	24개월 (2개월)
日記(壬戌秋七月朔朝)	壬戌 7. 1.-甲子 9.12.	1922-1924	26개월
花開錄(靑鼠重陽節)	甲子 9.13.-丁卯 3.29.	1924-1927	30개월
收葉錄一(赤兎靑槐月)	丁卯 4. 1.-己巳 4.29.	1927-1929	25개월
收葉錄二(己巳庚午月)	己巳 5. 1.-壬申 2.24.	1929-1932	34개월
收葉錄三(玄猿大壯月)	壬申 2.25.-癸酉 7. 9.	1932-1933	16개월
日新篇(癸酉流月)	癸酉 7.10.-甲戌 11.29.	1933-1935	16개월
日新篇二(靑狗臘月朔朝)	甲戌 12. 1.-丙子 5. 8.	1935-1936	17개월
(所在未詳)	丙子 5. 9.-壬午 2.29.	1936-1942	5년10개월
日新篇(玄黓敦牂三月朔朝)	壬午 3. 1.-癸未 10. 6.	1942-1943	18개월
(所在未詳)	癸未 10. 7.-癸未 10.28.	1943-1943	20일

『東學敎法』은 동학의 淵源, 名稱, 目的, 宗位, 義務, 敎旗, 敎服 등이 규정되어 있는 책으로, 1922년에 漢城圖書株式會社에서 兪煥자로 인쇄해온 것이다. 교주 직계의 족보 발췌본인 『慶州金氏世系』와 『慶州金德龍世系』도 있다. 교리를 밝힌 『趣旨』, 『記忘』, 『敎旗源本』, 『訓敬』과 『敬訓』이 있으며, 수운선생의 전기인 『大先生沿革史』도 있다. 이외는 교당의 기록류이다.

다만 『東學敎籍』 2책은 교인의 명부이다. 편찬시기를 알 수 없어서, 1943년을 필사시기의 하한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교인의 姓名, 本, 生年月日, 受敎年月, 道號, 宗位, 住所, 薦主 등이 필사되어 있다. 이는 1943년 10월 조선총독부가 서적과 집기 등을 압수하고 핵심신도를 체포했을 때 압수되었던 서적이다. 광복 후 압수당한 물품들을 상주경찰서에서 회수하였으나, 원래 총 6책의 『東學敎籍』은 이때 4책 분실되고 2책만 남았다. 실제로 경서나 가사의 판권지에 登梓主務者로 기록된 사람 중 상당수가 『東學敎籍』에는 보이지 않는다. 서적을 간행할 비용을 지원할 정도이면 교인 중에서는 상당한 위치의 사람일텐데, 명단에 없다는 것은 산실된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총서에 포함되지 않은 서적, 고문서와 歌辭는 대개 필사본이다. 다만 『東學敎法』은 兪煥자로 간행되었고, 『東學趣旨書』는 兪煥자와 목판으로 간행되어 2종의 간본이 전래되고 있다. 『東學趣旨書』는 단면인쇄물로서 『禮張』과 앞뒤에 각각된 판목 1판도 전래되고 있다. 이외에 『信狀』의 판목도 전래되어 2종 2판이 전래되고 있다.

#### 4.5 印刷用具

서적을 대량생산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 인쇄술이다. 인쇄용구는 기록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요소로서 기록물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고래로부터 서적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부문은 종교부문을 제외하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종교서적은 비교적 대량으로 인출되었기 때문에 전래본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 목판인쇄술이 가장 먼저 활용되었는데,

종교부문에서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으니, 그 증거가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인 것이다. 금속활자본도 지금 전래되는 것은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인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서양에서는 목판인쇄술의 단계는 스치듯 지나고 곧장 금속활자인쇄의 단계에 진입했는데, 『The Gutenberg Bible(the 42-line Bible)』이 最古의 인쇄본이다. 이도 역시 종교서적이다.

상주의 동학교당에서도 교인의 수가 증가하자 필사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원거리 지역의 교인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강론 외에 단면인쇄물, 경서와 가사의 인쇄물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경서와 가사를 인쇄하기 시작하였는데, 대개 목판인쇄를 활용하였다. 목판인쇄는 판각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일단 각판한 후는 필요에 따라 시기와 양을 조절하면서 장기간 인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는 규모가 작은 가옥도 가옥주가 직접 짓는 경우가 많았고, 소목의 가구는 누구나 손쉽게 만들었다. 동학교당에서 소목에 재주가 있는 장인을 선발해 刻字를 익히게 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인쇄방법이 목판인쇄술이었을 것이다. 목활자인쇄술도 각자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組版, 均字와 印出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으므로 그다지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석판인쇄술과 연활자인쇄술도 활용하긴 했지만, 인쇄시설을 갖춘 것은 아니고 외지의 인쇄업자에게 의뢰해서 인쇄한 것이다.

동학교당에는 일제 강점기의 탄압과 광복 후 교단의 해체로 인쇄용구가 망실되기도 하였지만, 일부는 남아있다. 그 유물은 책판, 목활자, 판각 또는 활자 제작용구, 조판용구, 인쇄용구, 제책용구 등이다.

동학교당의 판목은 65종 793권이 전래되고 있다. 경서의 판목은 7종 82판, 한글 가사의 판목은 27종 355판, 국한문가사의 판목은 29종 354판, 기타 2판이다. 책판의 규격(마구리 포함)은 45-47(廣) × 24.8-31(高) × 1.5-3(幅)cm의 범위에 속해,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규격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창도가』, 『어부스』, 『년시가』, 『送舊迎新歌』, 『運算時呼歌』 등에 일부 뒤틀리거나, 판면의 중앙이 불룩 솟아오른 배불룩 현상이 있고, 부분적으로 균열된 책판도 있지만, 현존하는 책판

은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목활자는 한자활자(대활자 7009자, 중활자 232자, 소활자)와 한글활자(대자, 중자, 소자)가 전래되고 있다.

판각 또는 활자제작 용구는 목판받침대, 조판재료함, 각판대, 목활자 재료제작대, 활자 작두, 조판용구는 粉板, 조판대, 조판틀, 조판소도구함이 남아있고, 인쇄용구로는 먹물단지, 먹물주걱, 먹술, 인쇄(印鬚), 궁글대, 제책용구로는 題簽版, 版權版, 卍紋菱花版 2판, 뽕대돌 2개, 실꼬는 틀, 제책대, 제책용 망치 등 각종 인쇄용구가 전승되어 있다. 이외 문서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용도인 것으로 보이는 인장도 남아있다.

## 5. 東學敎堂 記錄物의 特徵과 價値

상주 동학교당은 자칭 동학남접의 본부였다. 그 전적은 輔國安民, 布德天下, 廣濟蒼生의 정신을 내포하는 민족 고유 신앙을 기록한 것으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동학교당에 유전되고 있는 전적은 동학을 전도하기 위한 경서와 가사들로 주로 필사되거나 목판 또는 목활자로 인쇄되었다. 동학교당에는 동학에서 필요한 서적뿐만 아니라 이들 서적을 간행하는데 사용된 인쇄용구도 갖추어 전래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동학교당에 전래되는 서적을 통해 추정하면 1929년부터 1932년 사이가 서적 제작의 절정기였다고 볼 수 있다. 도합 82종의 간본 가운데 이 기간에 71종 이상을 간행했기 때문이다. 이는 1922년에 교당을 건축하고 교세의 확장을 꾀하여 1929년에는 교세가 꽤 확장되었고, 1934년경에는 교세가 쇠퇴하여 1포교 9지구에 약 800명이라는 기록<sup>35)</sup>과도 어느 정도 부합된다. 전래되고 있는 서적은 주로 1920-1930년대에 제작된 것이나, 광복 후 1950년대에 제작된 것도 없지 않다. 이는 1951년에도 『不易』과 『시경가』 2종을 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도 광복 후에 명맥은 유지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35) 村山智順, “朝鮮の 類似宗教,” 『調査資料』 제42輯(京城: 朝鮮總督府, 1935), 233-234.

동학교당의 자료는 상주 동학교의 교리, 역사, 국어학사, 문학사, 사회교육사적 연구에 중요성이 있다. 또한 서지와 인쇄술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수장 자료의 특징은 전통적인 인쇄술에서 현대 인쇄술로 이행하는 과정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중요하다. 소수의 서적에는 교주 김주희와 부교주 김낙세의 친필도 있어서 중요하고, 부교주의 장서인이 있는 구장본이 있어서 중요하다. 부교주 구장본에는 대개 구결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전적과 인쇄용구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이들 자료가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5.1 종교자료로서의 가치

상주 동학교당의 경전은 동학 연구에 필수불가결의 귀중한 자료라는 점이다. 동학교는 교명을 東學으로, 제1세 교주를 水雲大先生, 제2세 교주는 靑林先生으로 연원을 밝히면서, 不問時世變遷하고 不干政治得失하고 단순한 繼天立極함이 목적<sup>36)</sup>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써 수운선생의 사상을 계승한 종교로서의 면모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학의 분파는 많으나 상주 동학교당에서는 천도교와 대등할 정도로 경서를 통해 교리를 체계화하였고, 관련서적을 대대적으로 출판하였다. 결과적으로 유례가 드물게 많은 유물이 전승되어 있다. 따라서 동학교당의 기록물은 동학의 초기 사상과 동학혁명 이후 계파의 분화와 사상의 변모를 연구함에 있어 귀중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상주의 동학교당에서는 동학의 기본 원리인 『東經大全』의 사상을 『弓乙經』, 『道源經』, 『道和經』, 『教正經』, 『道正經』, 『道修經』, 『道誠經』, 『通運歷代』의 해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밝혀놓았다. 특히 『通運歷代』에는 체천사상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상주 동학교의 차별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sup>37)</sup> 이들 서적은 동학사상과 동학의 사적 변모과정을 연구하는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36) 『東學教法』(尙州: 東學本部, 1922), 1.

37) 『通運歷代』木版本(尙州: 東學本部, 1929), 張2b.

“盛運回復之理 先明於東方 故吾師受命於天 天地至道 萬物相生之理 人事當然之法 合以言之 盡心於三十七字之文 學者察其眞情 不違玄機 則亦如一理之所定也.”

인 자료가 된다는 점,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서술로 기술된 동학경전에 비해 구체적인 사례와 자세한 설명으로 노래하여 체득하는데 편리하게 하였다<sup>38)</sup>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訓敬』, 『東學趣旨書』와 『趣旨』에도 잘 나타나 동학의 우주관, 세계관, 신관을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동학교는 體天行道를 실천함으로써 선천시대의 太平聖代를 열고 廣濟蒼生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체천주의는 하늘님이 사람 속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바깥에 존재하는 외재적 실재로 파악하여 二元論의 神觀을 보이고 있고, 사람은 본시 小天이기 때문에 하늘은 아버지요 사람은 아들이므로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그 도를 밝히고 그 덕을 닦자<sup>39)</sup>는 것이다. 선천을 日의 精氣를 받는 天道의 시대로, 후천을 月의 精氣를 받는 地道의 시대로 보아 天地人 三才의 원리에 따라 인도의 시대가 되면 다시 천도의 시대인 선천으로 회복된다<sup>40)</sup>라고 피력하였다.

선천으로 회복되면 천황시절 다시 와서 목덕이 왕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민중에게 희망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암울한 일제의 치하에서 선천시대의 太平聖代를 열 수 있음을 고대하게 하여 도탄에 신음하는 민중을 널리 제도한 종교 자료의 총서로서 가치가 있다.

## 5.2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

동학가사는 가사문학 연구를 위한 자료의 보고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38) 김문기, 김용만, “상주 동학교와 동학가사 책판 및 판본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39호(2006), 198.

39) 『東學趣旨書』 木版本 (尙州: 東學本部, 1922).

“然而天道天德이 莫非人事一어니와 東道之意 其然히니 斯世之人兮어 何不敬道德이며 何不時習聖訓이리오 道者는 人之安宅也一어늘 人無宅焉이면 何所를 依之而容乎아 故로 天生萬民 道又生히샤 作之師 作之弟하야 以此教育之道로 已爲衆生所居之家히느니 何人이 不識不知리오.”

40) 『知時開明歌』 木版本 (尙州: 東學本部, 1932), 張7a.

“至今時期 말하즈면 先天後天 그가온디 도로先天 回復되야 天皇時節 다시와서 木德以旺 하실차로.”

동학교당에 수장되어 있는 112편의 동학가사, 그 외 필사본 가사 방책본 3책과 권자본 5축은 가사문학 최대의 작품집이다. 이들 가사는 종교문학, 가사문학, 민속문학과 서민문학 연구의 필수불가결의 귀중한 자료이다.

동학가사는 예배시간과 일상생활에서도 노래하고, 읊조리고, 애송했었다는 점에서 효용적 입장의 문학적 기능이 있다. 문학의 기능면에서 볼 때 공리적 효용성이 강조되어 있고, 삶의 가치와 세계의 본질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차적인 정신적 즐거움을 가지게 하며,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깨닫게 하는 교시적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개화의 주체로서 갑오경장과 3·1운동 등 애국애족, 개혁의 선구자 역할의 에너지원이 되었다. 따라서 공리적 입장의 문학적 기능을 함축하고 있는 작품<sup>41)</sup>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道德歌』<sup>42)</sup>와 『五行時格勸農歌』<sup>43)</sup>에 그 경향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은 현실의 불만을 승화시켜 이상적인 사회로 순환시켜 나갈 수 있는 자유, 평등, 평화와 행복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사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동학의 가사는 동학사상이란 주제와 목적으로 창작된 가사문학으로, 종교문학이 지닌 문학적 원형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작품이란 점이다. 뛰어난 문학적성은 없지만 반복적이고 연쇄적인 표현으로서 서민들이 쉽게 기억하게 하고, 이를 대량으로 간행해서 전파시킴으로써 가사의 대중화를 도모한 가사문학사상 최초의 작업<sup>44)</sup>이었다. 서민들이 애창하여 삶의 지표가 되었다는 점에서 공리적, 효용적, 교시적인

41) 柳慶桓, “東學歌辭의 文學性 診斷,” 『새국어교육』 52권(1996), 470.

42) 『道德歌』 木版本 (尙州: 東學本部, 1929), 張8b.

“自古事蹟 本다히도 남의 父母子孫되야 父母걱정 生覺안코 孝子孝婦 되엿스며 남의 任君臣下되야 任君法政生覺안코 忠臣烈士 되엿스며 남의스승 弟子되야 스승恭敬 모르 고도 繼天立極 하엿든가 그런理致 네로붓터 업느비니 네로업는 그런理致 이世上도 업슬 게라.”

43) 『五行時格勸農歌』 木版本 (尙州: 東學本部, 1932), 張6b-7a.

“조흔시절 년풍씨가 돌오거든 죽기한스 결단하고 남과차치 일심으로 일을힘써 근농히서 그빈천을 면츠하고 슈야불철 쉬지안코 텃디신령 조림하에 슈도할뜻 외우더니 텃디순환 때가와서 목덕이 왕조연되여 오즈 현도날아들고 청림세계 조흔경에 때를아는법.”

44) 김기현, “東學歌辭에 나타난 東學의 變貌,” 『문학과 언어』 제16집(1995. 5), 209-210.

문학적 기능을 발휘했다. 특히 서민문학의 특징과 20세기 과도기의 서민의식을 밝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는 점<sup>45)</sup>에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동학의 문학작품은 일반적으로 가사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河庵日記』에는 漢詩도 상당수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면 동학에도 한시작품을 남긴 것을 알 수 있어 그 지평을 넓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5.3 역사자료로서의 가치

상주 동학교의 기록물은 일제의 종교기관의 사찰과 서적검열에 대한 증거로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 또한 경서와 가사를 간행한 사정을 규명할 자료로서의 가치도 있다. 특히 부교주 김낙세의 일기인 『河庵日記』 17책은 고종 27년(1890)부터 1943년까지의 동학교당의 업무와 당시의 사회적인 사정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필사본이다. 여기에는 동학교당의 설립, 교당 건물의 건축, 경전과 가사의 출판과 검열, 압수, 경전과 가사의 간행 방법인 필사, 판각, 간행 과정, 보급, 교당의 행사, 포교활동, 교주, 부교주와 교도의 구속 등 일제의 감시와 탄압상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의 격동기에 동학교당이 취한 정중동의 반일의식과 자세를 보여주는 민족운동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sup>46)</sup>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 경찰이 동학교당을 사찰하고 교인의 동태에 대해 탐문한 기록을 들 수 있다. 『河庵日記』에는 일경이 동학교당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교인의 동태에 대해 사찰한 기록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 1922년 7월 27일 상주경찰서 경부보 大石直一이 순사 9명과 함께 와서 가택수색한 후 서적과 서류를 1상자 압수해 간 바 있다.<sup>47)</sup> 이후 일경은 관계인사를 호출하고 순사가 와서

45) 김문기, 김용만, “상주 동학교와 동학가사 책판 및 판본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39호(2006), 199.

46) 김문기, 김용만, “상주 동학교와 동학가사 책판 및 판본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39호(2006), 197.

47) 金洛世, 『日記; 壬戌之秋七月朔朝』 寫本 (尙州: 1924), 1924.7.27. 張38b.

교주 2분의 신문을 조사하였고,<sup>48)</sup> 사건이 발생후 식비의 금액과 보조인원에 대해 조사하였다.<sup>49)</sup> 심지어 교당의 수지금액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으며,<sup>50)</sup> 현성식을 거행할 때 순사가 와서 참관하였다.<sup>51)</sup> 1933년 7월에는 11일 文巡查來過, 12일 文巡查來過, 13일 文巡查來過, 14일 井上所長來問朴華植被削理由, 15일 林巡查來過, 19일 夜林巡查來過, 20일 夜所長來過, 26일 林巡查來過, 29일 井上所長來問裴昇周朴華植等去就<sup>52)</sup>와 같이 9차례나 사찰한 기록이 있다. 달마다 차이는 있지만 끊임없이 사찰당한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야심한 시각에도 순사 여럿이 들이닥친 일<sup>53)</sup>도 많았다.

이외에도 신문을 통해 접한 국내외의 중요한 사건은 약기해 놓았는데, 예를 들면 관동대지진 발생, 남산 조선신궁 건립, 동아일보 정간 44일만에 복간한 일, 大正 일왕의 사망, 중국의 南軍이 상해와 남경을 점령한 것은 천운이라 기록한 것을 통해 중요사건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총독부의 출판 검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 1929년 7월 22일에는 상주경찰서에 가서 부장의 검열을 받은 후 京城 總督府 警務局 圖書課로 출판할 원고와 許可願을 우송하였고,<sup>54)</sup> 간혹 서적에 문제가 있으면 상주 駐在所에 불려가서 해명을 해야 했고,<sup>55)</sup> 문제가 없으면 허가증이 내려왔고,<sup>56)</sup> 허가가 나지 않으면 불허가증서를 보내온 것을 볼 수 있다.<sup>57)</sup> 인쇄가 완료 되면 인본을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로 발송해야 했다.<sup>58)</sup> 이와 같이 일제의 종교기관과 출판물의 엄격한 단속에 대한 연구자료가 될 것이다.

48) 金洛世, 『花開錄; 靑鼠重陽節』 寫本 (尙州: 1927), 1924.9.16. 張1a.

49) 金洛世, 『花開錄; 靑鼠重陽節』 寫本 (尙州: 1927), 1924.9.27. 張1b.

50) 金洛世, 『花開錄; 靑鼠重陽節』 寫本 (尙州: 1927), 1925.4.9. 張13a.

51) 金洛世, 『花開錄; 靑鼠重陽節』 寫本 (尙州: 1927), 1925.6.13. 張17b.

52) 金洛世, 『日新篇; 癸酉流火之月』 寫本 (尙州: 1934), 1933.7. 張1-2.

53) 金洛世, 『花開錄; 靑鼠重陽節』 寫本 (尙州: 1927), 1926.8.9. 張44b.

54) 金洛世, 『收桑錄二; 歲在己巳庚午月』 寫本 (尙州: 1932), 1929.7.22. 張7b.

55) 金洛世, 『收桑錄一; 赤兎青槐之月』 寫本 (尙州: 1929), 1927.2.28. 張56b.

56) 金洛世, 『收桑錄一; 赤兎青槐之月』 寫本 (尙州: 1929), 1927.8.23. 張10b.

57) 金洛世, 『收桑錄二 歲在己巳庚午月』 寫本 (尙州: 1932), 1929.12.14. 張18b.

58) 金洛世, 『收桑錄三; 亥獮大壯之月』 寫本 (尙州: 1933), 1927.8.23, 30. 張10b,11a.

## 5.4 국어사 자료로서의 가치

상주 동학교당에는 광복 이전에 교주, 부교주와 교인이 사용하던 서적과 함께 교인에게 배포할 용도로 인출했지만, 배포되지 않고 남아있는 책도 상당수 전래되고 있다. 동학교당에서는 국한문본과 한글본을 동시에 제작했으므로, 당대어 사이는 물론 조선시대 말과 현대어와의 변화를 살피는데도 적격일 수 있다. 예로 『퇴선슈덕가』의 경우 2질의 책판이 전래되고 있다. 한 질은 안동에서 판각해온 것이라고 하는데, 마멸되어 쓸 수 없는 상황이 아닌 동일한 책판을 거의 같은 시기에 다시 판각했다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埋木이 군데군데 있는 판목도 2장이 더 있다.

또한 배포용 책에는 口訣이 없지만, 사용하던 경서에는 구결이 달린 책이 있다. 한글로 저작된 동학가사는 요즈음 말로 쉽게 유추할 수 있고, 국한문 가사도 한글 가사의 한자 어휘만 한자를 쓴 것이므로 구결이 필요 없다. 그러나 한문으로 저작된 동학경서는 구결이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교주나 부교주가 보던 책으로 추정되는 동학경서에 구결이 첨가된 책이 있다. 동학경서 가운데 『道誠經』을 제외하고 7종 13책에 구결이 첨가되어 있다.

한문 문장은 口語와는 어순이 달라 곧바로 우리말로 풀어서 이해하기 힘들다. 이때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적인 요소인 토를 중간 중간에 넣으면 이해하거나 번역하기가 쉽다. 따라서 구결이란 한문의 원전을 읽을 때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독송의 편의를 위해 각 구절 아래 달아 쓰는 문법적 요소를 총칭한다. 吐, 懸吐, 釋義라고 하기도 하고, 국어의 借字로 입것 또는 입것이라고도 한다.

간행할 때부터 본문 사이에 한글 구결을 첨가해서 간행한 경우는 연활자로 간행된 『道源經』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유자가 첨가한 전통방식의 구결이 있다. 『東經大全 附 弓乙經』의 경우는 사본, 목판본, 석판본에 모두 지두에 구결이 있으며, 『弓乙經』은 사본에 구결이 있고, 『聖經』의 경우에는 목판본과 목활자본에 구결이 있다. 목판으로 간행된 『通運歷代』, 『道源經』, 『道和經』에도 구결이 있고, 목활자로 간행된 『教正經』, 『道正經』과 『道修經』에도 구결이 달려 있다.

이들 구결은 조선시대의 구결보다는 보다 현대의 표현에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구결은 유학서적 또는 불교서적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동학서적에 표기된 구결은 조선조의 구결을 계승한 형태이며, 일제 강점기 구결의 양상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동학서적의 구결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이다. 구결을 첨가해 간행한 『道源經』은 출판담당자가 첨가했을 수 있는데, 아마도 부교주가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석판본 『東經大全 附 弓乙經』에는 부교주 김낙세의 장서인인 [河庵]이 날인되어 있어서 그 중요성이 배가된다고 하겠다.

## 5.5 사회교육사 자료로서의 가치

동학교의 경서와 가사에 나타난 내용에는 대중을 교화한 교육적 기능도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개화기 시가는 국난을 당해 방황하는 민중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학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가운데 동학의 가사는 동학 교리를 누구나 알기 쉽게 한글로 풀이한 것으로, 백성을 교화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동학가사에 내포된 사상 가운데 사회교육 사상은 유가의 사상을 계승한 것이다. 즉 도덕교화를 위주로 형제우애, 효자효부, 충신, 부화부순의 확립을 주장하고, 도덕군자의 인격 갖춘 후에 세상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修身齊家와 家道和順은 유학의 인륜도덕으로서 모든 사람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으로 보고 교화한 것이다. 그에 대한 편린은 『開明共產歌』,<sup>59)</sup> 『年時歌』<sup>60)</sup>와 『知時開明歌』<sup>61)</sup> 등에

59) 『開明共產歌』 木版本 (尙州: 東學本部, 1932), 張5a.

“天地萬物 만타하도 父子一身 그뿐이니 父慈子孝 옷씀이요 사름사름 比히보면 兄弟一身 그뿐이니 相救之道 生覺하여 友愛二字 옷씀일세.”

60) 『年時歌』 木版本 (尙州: 東學本部, 1929), 張26a.

“三重之道 무어신가 仔細보고 잊지마소 남의 弟子되온 사름 스승섬겨 恭敬之行 하는法和 남의 臣民 되온사름 任君섬겨 忠義之行 하는法和 父母님前 子孫되여 父母섬겨 孝行之道 行하는法 以此三端 밝혀니여 허물업시 行커드면 三重之道 알아씨니 合其德 合其明 合其

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가사상과 배치되는 사상을 볼 수 있으니 바로 萬民平等思想이다. 유가에서는 사농공상으로 신분을 규정했으므로, 타고난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기는 지극히 어려웠다. 그러나 동학교에서는 天道를 얻게 되면 누구나 君子가 될 수 있다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만민평등사상을 고취시켰다. 인본사상, 인간존중을 기치로 孺庶도 同等하며,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교육하고 있어서 누구든 일심으로 수도하면 빈천이 물러가고 부귀가 자연히 온다고 하였으니, 곧 만민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편린은 『시경가』<sup>62)</sup>와 『창덕가』<sup>63)</sup> 등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신교육에 매진했던 것이다.

또한 무력투쟁은 지향할 바가 아니고, 순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늘이 내린 천명을 따르고 순리를 따라 행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들 것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무장투쟁보다는 개화하고 각성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sup>64)</sup> 나아가 일본은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다가 결국은 스스로 멸망할 것이라고 다독이고 있다. 동학교당에서는 백성을 교화시켜서 나라의 독립을 찾고자 한 사상을 고취한 자료란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吉凶 그안인가.”

61) 『知時開明歌』 木版本 (尙州: 東學本部, 1932), 張13b

“敬天順天 行하시고 男女有別 內外定코 夫和婦順 行히가고 父慈子孝 人倫定코 孝敬二字 行히가고 天理節文 授受之禮 教育法을 磨鍊하여 師弟之誼 行히노코 敬畏之心 직혀두고 同氣連枝 兄弟之誼 一身갓치 스랑하여 相救之道 友愛二字 行히가고 一家親戚 節文定코 和睦二字 行히가고 老少冠童 次序定코 禮義廉恥 두로밝혀 愛育敬長 行히가고.”

62) 『시경가』 木版本 (尙州: 東學本部, 1951), 張2a,11b.

“사람사름 허다사름 텃명을 벗어날제 뉘아니 어질이오 모신바도 하늘이오 하는바도 하늘이오 밋을바도 하늘일세 품성은 한가지라 선악이 엮는비니 사람도시 일반일세.”

63) 『창덕가』 木版本 (尙州: 東學本部, 1925), 張46b.

“부귀가 무위시며 빈천이 무위신고 슈덕하기 심을씨면 빈천이 물너가고 부귀가 도라오네.”

64) 『知時開明歌』 木版本 (尙州: 東學本部, 1932), 張9a.

“生覺고 生覺히셔 兵器崇尙 부디말고 道德다기 심을씨소 나의敎訓 아니듯고 子乃固執 못이기에 兵器進歩 하다가는 明天이 憎之하스 以理罰之 술을나려 自身滅亡 식킬테니 不知何境 네아니냐.”

## 5.6 서지 자료로서의 가치

동학서적이 증대되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대두되었을 것이므로 『東經大全總目錄』을 편찬하였다. 이는 당시의 교단으로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목록은 동학의 경서와 가사를 증시한 것으로 이를 중심으로 편찬된 것이다. 여기에 표현된 서지기술은 당시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동학의 특수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목록의 내용에 저자자, 서명과 張次만 기록한 것은 조선시대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한문본과 한글본의 유무와 등재자를 기록한 것은 동학의 특수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가장 소형의 책은 1911년에 필사된 『룡담유스』로 20.7 × 20cm이다. 가장 큰 책은 사본의 『창덕가』로 33.7 × 23cm이다. 이 두 책은 가사이다. 경서 가운데 가장 작은 책은 목활자로 간행된 『教正經』으로 23.5 × 15cm이다. 가장 큰 책 목활자본 『聖經』으로 32.5 × 22.2cm이다. 30 × 20cm 크기 내외의 책이 일반적이다. 이는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서적의 규격이다.

관심에 있어서 어미는 상화문어미,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가 주종이며,<sup>65)</sup> 한 판면의 행자수는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학교 초기에 간행한 경서인 목활자본 『教正經』은 7행12字, 『道正經』과 『道修經』은 8행15字, 『聖經』은 9행18字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10행본이다. 10행16자, 10행17자, 10행19자, 10행20자도 있으나, 10행18자가 주종이다.<sup>66)</sup> 이는 조선 말기의 일반적인 전형이 일제강점기까지 전승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상업적인 서적을 간행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版權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版權紙도 없었다. 판권은 원고나 출판물의 형태로 표현된 저자의 창조적인 노력의 산물에 대한 실질적 혹은 잠재적인 금전적 가치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현대에는 판권을 책의 호적과 같은 개념으로

65) 김문기, 김용만, “상주 동학교와 동학가사 책판 및 판본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39호(2006), 190.

66) 김문기, 김용만, “상주 동학교와 동학가사 책판 및 판본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39호(2006), 191.

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판권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 책의 가치는 떨어진다. 조선시대에는 간행시기와 간행자를 알리는 간단한 刊記만 있었다. 동학교당에서 간행한 서적에는 간행년도, 저작 또는 발행자, 인쇄자, 발행소 등을 명기한 版權紙가 수록된 것은 새로운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에 출판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의 검열을 받아야 했고, 검열 필임을 증명하기 위해 판권지를 첨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동학 초기의 서적에는 판권지가 첨부되지 않았다가, 1920년대부터 판권지가 나타난다. 그 판권지는 점차 변화해서 정착한 양상을 보인다.

1909년 목활자로 간행된 『敎正經』의 권말에는 ‘孔夫子誕降二千四百六十年己酉(1909)’란 간기가 있다. 『聖經』 가운데 수록된 『敎正經』의 권말에는 ‘孔夫子誕降二千四百六十一年庚戌(1910)’이란 간기가 있다. 1920년에 간행된 『道源經』과 『信心篇』에는 ‘庚申(1920)四月(初)五日’, 『경운가』와 『운산몽중서』에는 ‘경신(1920)사월오일’이라 간행년도가 표지에 필사되어 있다. 1924년 활자본인 『聖經』 가운데 수록된 『道修經』의 권말에는 ‘上元甲(1924)三月 日新刊’이라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1924년까지는 판권지가 나타나지 않고 전통적인 간기가 수록되는 양상이 견지된 것을 볼 수 있다.

1922년 조선총독부의 공인을 받은 후 간행된 『東學敎法』에는 ‘龍潭淵源靑林布德’과 ‘靑林布德’이 다 사용되었다. 하지만 판권지에는 일본 연호로 기록되어 있다. 1924년에 간행한 『道源經』에는 ‘龍潭布德’이라 수록된 판권지가 부착되어 있다. 1925년에 간행된 『창덕가』는 특수한 경우로 판권지에 ‘大正十四年’이라 수록되어 있다. 1927년초에 간행된 목판본 『聖經』 표지에는 간행년도가 필사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靑林布德’으로 년도를 표기한 것이 보인다. 1929년에 간행된 『聖經』과 『通運歷代』에는 간지는 생략된 형태로 ‘龍潭淵源靑林布德’이라 기록한 판권지가 부착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동학교당에서도 판권지가 정착되는 데는 여러 단계를 거쳐 변모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서적마다 면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漁父辭』의 경우

대개는 장31까지 제책되어 있다. 그러나 장29까지만 판각되고 뒷부분은 판각되지 않은 채 제책된 책(국립 古1313-4)도 있다. 후에 ‘觀時格物歌’의 내용을 더 확충시켜 간행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간행년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장되어 있는 동학의 경서, 가사, 서적도 당시의 편찬방법, 판각, 인쇄기술과 지질을 노정시켜 주고 있다. 일부 석판본과 목활자본도 있지만, 대다수는 목판본이다. 이는 아직 조선시대의 사조가 그대로 지속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질을 보면 저지로 제작되었는데,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서 양지의 파지가 섞인 현대의 한지와는 다른 종이다. 그러나 초인본과 후쇄본의 지질이 상이한 것도 볼 수 있다. 표지는 전통적인 장지가 사용되었고, 그 능화문은 衿紋으로 역시 전통이 지속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상주 동학교당의 서적은 전통 서적과 현대서적과의 가교가 되는 것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 5.7 인쇄사 자료로서의 가치

상주 동학교당에서는 목판인쇄술, 목활자인쇄술 외에도 석판인쇄술과 연활자인쇄술을 활용하여 경서와 가사를 간행하였다. 또한 인쇄시설을 갖춘 전통적인 출판사를 보유하고 서적도 대대적으로 간행하였다. 당시 도입된 서양식 인쇄술도 활용하였으나 주로 이용한 인쇄술은 전통적인 인쇄술이었다. 즉 목판인쇄와 목활자인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석판인쇄 기구와 연활자인쇄 기구는 수입해야 했으므로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인쇄시설을 갖추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통적인 인쇄술인 목판인쇄와 목활자인쇄의 시설은 小木의 도구만 갖추면 가능하므로, 설비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당시의 상주는 목재의 산지와 가까웠을 것이므로 목재의 수급도 용이했을 것이고, 刻手 등 匠人도 외래인쇄술의 장인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훈련시키거나 초빙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로 목판인쇄술, 간혹 목활자인쇄술을 활용한 것이다.

부교주의 일기를 통해 경서와 가사를 판각하기 위한 登梓本의 필사, 인쇄지의

조달, 판각용의 소나무, 참죽나무[栴木], 들배나무[梨木] 등 판재의 조달, 각수의 동원, 판각의 공임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일경에 출판허가 출원과정과 간행이 완료된 후 총독부 경무국에 납본한 내용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판각된 경서의 판목 7종 82판, 가사(한글본) 27종 355판, 가사(국한문혼용) 29종 354판, 기타 책판 2종 2판, 도합 65종 793판과 인쇄용구 30종 102점이 전래되고 있다. 활자는 한자활자(대활자 7009자, 중활자 232자, 소활자)와 한글활자(대자, 중자, 소자)가 전래되고 있다.

판각 또는 활자제작 용구는 목판받침대, 각판대, 목활자 재료제작대, 활자 작두가 있고, 組版用具는 粉板, 조판대, 조판틀, 조판소도구함, 조판재료함이 있으며, 인쇄용구는 먹물단지, 먹물주걱, 먹솔, 印鬚, 궁글대가 있고, 제책용구로는 題簽版, 版權版, 紋紙菱花版 2판, 뽕뎃돌 2개, 실꼬는 틀, 제책대, 제책용 망치 등 각종 인쇄용구가 전승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전래되고 있는 판목은 아직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활자는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다. 활자는 한번 만들면 다양한 서적을 인쇄할 수 있으므로, 많은 종류의 서적을 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본의 수량은 많을 수 없었다. 현재 간본과 판목이 함께 전래되는 경우는 많다. 민간의 활자는 장인들이 각 지방을 전전하면서 인쇄한 바 그 인본의 확인도 쉽지 않고, 그 목활자의 전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더구나 간본, 인쇄에 사용된 판목과 활자, 인쇄용구까지 갖추어 전승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이 있고, 전통인쇄술과 20세기 인쇄술의 전환기에 있어 우리나라 인쇄술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 점에 있어서 상주 동학교당의 자료는 인쇄사 연구의 주요한 자료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서와 가사를 간행한 후 신도에게 배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해서 그 유통 방법을 논의했다는 점과 유포한 방법에 대한 기술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서적의 유통과정을 연구하는데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렇게 각판한 판목을 일제의 감시와 압수란 탄압을 받으면서도 7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잘 간직된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고 하겠다.

## 6. 結 言

상주 동학교당에 전승된 기록물에 대해 살펴본 바, 동학교당에는 동학교를 전교할 자료로서 경서, 이를 보완해서 교리를 전파할 가사와 교당의 역사를 기록한 서적이 많이 수장된 것을 보았다. 또한 이들 자료 외에 이들 서적을 간행할 목적으로 제작한 판목, 목활자와 인쇄용구도 상당수 전승된 것을 보았다. 나아가 상주의 동학교당에 전존하는 기록물은 종교자료, 역사자료, 문학작품, 국어사 자료, 사회교육운동 자료, 서지자료, 인쇄사 연구의 자료로서 가치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종교자료로서의 가치: 동학교의 자료는 體天行道를 실천함으로써 선천시대의 太平聖代를 열고 廣濟蒼生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종교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체천주의는 하늘님이 사람 속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바깥에 존재하는 외재적 실재로 파악하여 이원론적 神觀을 보이고 있다. 사람은 분시 小天이기 때문에 하늘은 아버지요 사람은 아들이므로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그 도를 밝히고 그 덕을 닦자는 것이다. 암울한 일제의 치하에서 선천시대의 태평성대를 열 수 있음을 고대하게 하여 도탄에 신음하는 민중을 널리 제도한 종교자료의 총서로서 가치가 있다.

역사자료로서의 가치: 상주 동학교의 기록물은 특히 부교주 김낙세의 일기인 『河庵日記』 17책을 통해 일제의 서적과 출판 검열, 종교기관의 사찰, 당시 정치적 변화에 대한 증거로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경서와 가사를 간행한 사경, 드러내지는 못하고 은밀하게 반일 민족사상을 고취한 사료로서의 가치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 동학교당에 수장되어 있는 112편의 동학가사, 그 외 필사본 가사 방책본 3책과 권자본 5축은 가사문학 최대의 작품집으로 가사문학 연구를 위한 자료의 寶庫이다. 이들 가사는 종교문학, 가사문학, 민족문학과 서민문학 연구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귀중한 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河庵日記』에 수록된 상당수의 漢詩도 동학의 이해와 동학문학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국어사 자료로서의 가치: 가사의 경우 국한문본과 한글본을 동시에 제작했으므로, 현대어와의 음운의 변화를 살피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란 점이다. 상주 동학교당에 교주, 부교주와 교인이 사용하던 동학경서 가운데 『道誠經』을 제외한 7종 13책에 구결이 첨가되어 있는데, 일제 강점기의 구결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이다.

사회교육 자료로서의 가치: 동학 가사에 나타난 내용에서 대중을 향한 교훈적 기능도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학가사에 내포된 민중을 교육한 사상은 도덕교화를 위주로 한 유가의 忠孝悌思想과 輔國安民思想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유가사상과 배치되는 사상으로 천도를 얻게 되면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萬民平等思想을 고취한 점에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가사를 통해 후천개벽을 지향하게 하여 민중에게 현실을 타개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돌아온다는 희망을 주었다는 점에 가치가 있다.

서지 자료로서의 가치: 우선 당시의 교단으로서의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목록도 편찬한 점에 가치가 있다. 또한 당시까지 版權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版權紙도 없는 상황에서 판권을 첨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초기단계의 판권의 변화양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인쇄사 자료로서의 가치: 상주 동학교당에서는 인쇄시설을 갖춘 전통적인 출판사를 보유하고 서적도 대대적으로 간행했었다는 점이다. 즉 목판인쇄와 목활자인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판목, 활자, 판각 또는 활자제작 용구, 조판용구, 인출용구, 제책용구까지 전래된다. 인본과 함께 인쇄용구까지 갖추어 전승되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이 있고, 전통인쇄술과 20세기 인쇄술의 전환기에 있어 우리나라 인쇄술의 단면을 보고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더구나 부교주의 일기를 통해 판각용의 登梓本의 필사, 인출지의 조달, 판재의 조달, 각수의 동원, 판각의 공임 등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유통과정까지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동학교당에서 간행한 서적, 그 서적을 인출한 목판과 목활자의 실물, 서적간행에 대해 기록한 부교주의 일기까지 구비되어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특히 부교주의 일기는 동학에서 간행한 서적의 출판시기, 등재본 필사자, 각수명, 각수의 공임, 판재의 산지, 종이 산지, 가격 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동학교당의 역사, 나아가 일제의 탄압상을 밝히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상주 동학교당에 전승되어온 기록물은 민족문화 연구의 귀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심도있게 연구해서 그 가치를 규명해서 민족문화의 정수로 승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나아가 이를 잘 보존해서 자손만대에 전승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들 문화유산을 세계에 현창해서 민족의 자존을 드높이는 자료로 삼을 필요도 있다.

## <참고문헌>

- 김기현. “東學歌辭에 나타난 東學의 變貌.” 『문학과 언어』 제16집(1995. 5). 205-223.
- 金文基. 『尙州 東學敎堂 遺物 目錄』. 대명, 2005.
- 김문기. “상주 東學敎와 동학교당 所藏 遺物.” 『상주 동학교당 소장유물도록』. 상주시, 2006.
- 김문기, 김용만. “상주 동학교와 동학가사 책판 및 판본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39호(2006). 161-205.
- 김상일. “상주지역 동학교단의 활동과 동학가사.” 『동학학보』 제10권 2호(2006). 47-210.
- 김상일. “전·후기 동학가사의 동학사상과 그 변모.” 『동학학보』 제5호(2003). 177-223.
- 南宮勇權. “韓國 開化期 文學의 社會教育史的 研究.” 『關大論文集』 V.16 No.1

(1988). 331-367.

『東學敎法』. 尙州: 東學本部, 1922.

裴賢淑. “尙州 東學敎堂 刊行과 收藏 書籍考.” 『書誌學研究』 22집(2002). 33-62.

상주시. 『상주동학교당소장유물도록』. 상주: 상주시, 2006.

양병기. “동학의 정치사상으로서의 재조명.” 『동학학보』 제2권(2000). 281-299.

柳慶桓. “東學歌辭의 文學性 診斷.” 『새국어교육』 52권(1996). 455-473.

유상화. “상주동학가사의 문헌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대학원. 1993.

全柄昆. “尙州 東學敎의 人本思想 研究.” 碩士學位論文. 嶺南大學敎育大. 1990.

정재호. “동학경전과 동학가사 연구.” 『동학연구』 제8권(2001). 19-75.

채길순. “경상북도 지역의 동학활동 연구.” 『동학학보』 제27권(2013). 93-134.

최광만. “初期 東學敎團의 修鍊過程에 관한 研究.” 『敎育史學研究』 제1집(1988. 6). 123-158.

